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DEVELOPING AN OLD TESTAMENT STUDY MANUAL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COVENANT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HANGHUNDAE CHURCH**

written by

SANG BOK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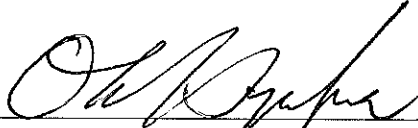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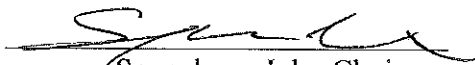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Hyung Kook Oh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March 31, 2015

**DEVELOPING AN OLD TESTAMENT STUDY
MANUAL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COVENANT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HANGHUNDAE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ANG BOK LEE

MARCH 2015

언약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
구약성경공부 교재 개발
- 창훈대 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오 형 국 교수

이 상 복

2015년 3월

Abstract

Developing an Old Testament Study Manual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Covenant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hanghundae church

Sang Bok Lee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kingdom of God is the most significant theme of the Bible. Therefore, the twofold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1) to provide church members with outlines or summaries of the Old Testa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ingdom of God and covenants, and (2) to help church members reading the Old Testament gain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Word of God.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even chapters. The introduction presents the goals, importance, and scope of this study. Chapter 2 summarizes the contents and process of the one year Bible reading program that had been taught in the churches that I have served. Chapter 3 discusses the definition and meaning of the kingdom of God and covenant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particular surveying the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s for a Covenantal Worldview*, written by M. G. Kline.

Chapter 4 investigates the first project of the kingdom of God in Genesis 1-11. Chapter 5 considers the second project of the kingdom of God in Genesis 12 - Judges. Chapter 6 explores the third project of the kingdom of God in 1 Samuel - Malachi. Chapter seven concludes this thesis by summarizing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kingdom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heological Mentors: Hyung Kook Oh,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글

아부런 자격도 없는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창훈대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오형국 교수님, 최승근 교수님, 황진기 교수님, 그리고 모든 과정이 마쳐질 때까지 큰 도움을 주신 김태석 목사님과 여러 스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아들을 한결 같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늘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의 모든 여정을 함께해 오면서 항상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와 삶의 큰 기쁨이 되어준 두 딸과 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풀리 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졸업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2015년 3월 이상복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3
제 3 절 연구의 개요	4
제 2 장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와 하나님 나라 관점의 중요성	5
제 1 절 입상교회들	5
1. 나성한미교회	5
2. 사랑의교회	6
3. 창훈대교회	6
제 2 절 교제의 구성과 운영방식	7
1. 32주 용	7
2. 교제의 구성 방법	8
3. 교제의 세부 내용	8
4. 진행방식	9
제 3 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의 필요성과 유익들	9
1. 필요성	9
2. 의미	10
3. 유익들	11
제 3 장 성경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언약	13
제 1 절 하나님 나라	13
1.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	13
2.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	15
가. 왕의 통치(주권)	15

나. 백성	17
다. 땅(영토)	18
3.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20
4.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들	21
제 2 절 언약	22
1. 언약의 정의	22
2. 언약의 특징	25
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근거한 주도성 혹은 일방성	25
나. 인간의 언약적 책임과 순종의 중요성	27
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언약적 책임(행위)의 상관성	28
3.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들	30
제 4 장 하나님 나라의 1차 프로젝트(창1-11장)	31
제 1 절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창1-2장)	31
1. 우주 만물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31
2. 이 땅의 대리 통치자가 된 인간	32
3. 에덴동산에서 출범한 하나님 나라의 기본 패턴	33
가. 에덴동산에 세워진 질서와 비전	33
(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34
(2) 생명나무	35
나. 인간이 지켜야 할 명령들	35
(1) 안식일 준수 명령	36
(2) 문화 명령	36
제 2 절 하나님 나라의 실패와 회복에 대한 약속(창3장)	38
1. 인간의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실패	38
가. 거짓 왕 사탄의 유혹	38
나. 인간 왕의 반란	39
2. 절망 속에 피어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소망	40

가. 우주의 왕 하나님의 심판	40
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	42
제 3 절 두 왕국(하나님과 사탄)의 충돌과 결말(창4-11장)	44
1. 뱀의 후손들	45
가. 홍수 이전	45
나. 홍수 이후	46
2. 여자의 후손들	47
가. 셋의 후손들	48
나. 노아의 후손들	49
3. 뱀의 후손들의 도전과 비극적인 결말	50
제 4 절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한 보충해설과 질문들	51
1. 이해를 위한 질문들	52
가. 창세기1,2장	52
나. 창세기3장	53
다. 창세기4-11장	53
2. 적용을 위한 질문들	54
제 5 장 하나님 나라의 2차 프로젝트(창12장-사사기)	56
제 1 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한 백성 만들기(창12-50장)	56
1. 아브라함 언약	57
가. 언약의 내용	57
나. 언약의 목적	58
다. 언약의 특징	58
2.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59
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주권적 은혜	59
나. 족장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찾아온 위기들	60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통한 분제 해결	60
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됨	61

마. 요셉	62
제 2 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출-신명기)	64
1.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심	64
가. 열 가지 재앙	64
나. 유월절과 출애굽	65
2.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	67
3.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	69
가. 율법	69
나. 성막과 제사	71
다. 계속된 불순종과 반복된 훈련	73
제 3 절 하나님 나라의 영토 찾기(여호수아): 도전과 실패(사사기)	75
1. 하나님 나라의 영토 만들기	76
가. 전쟁의 성격	76
나. 전쟁의 준비, 과정, 결과	77
2.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범한 하나님 나라	80
가. 오직 하나뿐인 실로의 중앙 성소	80
나. 48개 성읍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	82
다. 언약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순종의 중요성	83
3. 신징 통치의 실현을 위한 이스라엘의 도전과 실패	84
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그 결과	85
나. 전국각지로 흩어진 레위인들의 철저한 실패	86
제 4 절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한 보충해설과 질문들	88
1. 이해를 위한 질문들	92
가. 창세기12-50장	92
나. 출애굽기-신명기	93
다. 여호수아,사사기	93
2. 적용을 위한 질문들	94

제 6 장 하나님 나라의 3차 프로젝트(삼상-말라기)	96
제 1 절 왕정 제도를 통한 신정 정치의 실험과 실패	97
1. 통일왕국 시대의 왕들	100
가. 백성이 내세운 실패의 모델, 사울	100
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성공의 모델, 다윗	102
다.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에 실패한 솔로몬	104
2.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	107
가. 북 이스라엘	108
나. 남 유다	109
제 2 절 선지자들이 선포한 종말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111
1. 여호와의 날	113
가. 심판의 날	113
나. 구원의 날	115
2.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 나라	115
가. 인자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	116
나. 고난 받는 종 메시아	116
3. 새로운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	117
가. 공의와 의	118
나. 인애	118
다. 믿음	119
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삶	119
4. 새 언약과 성령	120
5.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세계 열방으로 구성되는 새 백성	122
6. 새 예루살렘(새 하늘과 새 땅)	123
제 3 절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한 보충해설과 질문들	124
1. 이해를 위한 질문들	125
가. 왕국시대	125
나. 예언서들	126

2. 적용을 위한 질문들	127
제 7 장 결론	129
제 1 절 요약	129
제 2 절 교제에 근거한 성경일독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	131
1. 긍정적인 유익들	131
2. 한계와 보완점들	133
참고문헌	136
Vita	14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지난 1세기 동안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사(史)에 유례 없는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성경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다. 이만열 박사에 의하면 1882년 만주 봉천에서 번역 출간된 예수성교전서 계통의 성경이 이 성경의 번역과 출판에 참여했던 한국인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한국에 전래되었고, 그 결과 한국에서는 선교사가 입국하기도 전에 먼저 전래된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의해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양은 한국교회 초기부터 말씀을 자세히 살핀다는 뜻을 가진 사경회 형식의 집회를 만들어내면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갔고, 성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은 결국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상 유례없이 빨리 성장 발전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¹⁾

그러나 불행하게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정체되거나 쇠퇴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의해 5년마다 조사 발표되는 한국의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10년의 통계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3대 종교 중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숫자가 줄었다. 2005년의 기독교 인구는 861만 여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4만 여명이 줄어 1.6퍼센트 감소했다. 반면에 불교는 1072만 여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2만 여명이 늘어 3.9퍼센트 증가했고, 천주교는 514만 여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219만 여명이 늘어 74.4 퍼센트의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했다.²⁾

1) 이만열, *한국 기독교사 특강* (서울: 성경읽기사, 1989) 19-20.

2) 인구주택총조사. Online: http://www.census.go.kr/hcensus/ui/html/data/data_020_010_List.jsp?q_menu=4&q_sub=2&q_bbsId=10.

기독교의 인구 감소와 성장력 둔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 대한 관심의 부족을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목회와 신학 2004년 7월호에 게재된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과 말씀 묵상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항목 중 성경읽기에 관한 질문에서 매일 성경을 일정 분량 읽는다는 응답이 39.4퍼센트로 나왔다.³⁾ 이 결과를 뒤집어 보면 젊은이들 10명 중 6명은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 통계 결과는 한국교회가 매년 성경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회 내에서 다양한 성경읽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교회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성도들에게 성경읽기표를 나눠주면서 성경읽기를 유도하고 있지만, 한 해를 마무리 할 때 성경을 완독한 성도들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영적 게으름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크다. 많은 수의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각 부분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아무리 좋아도 서로 꿰어 있지 않으면 한 주먹의 진주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평신도들이 알고 있는 각각의 진주들을 하나의 줄로 연결해서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인 D. A. 카슨도 현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종합적인 지식이라고 말하면서 성경 전체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과 이에 대한 신선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⁴⁾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하나님 나라와 인약”이라는 두 개념을 성경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로 보고, 이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함으로써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실제적으로 돕고자 한다.

3) 박삼열,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과 말씀묵상에 관한 의식조사,” 목회와 신학, 2004년 7월호, 45.

4) D. A. Carson, 신약개론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노진준 역 (서울: 은성, 1993) 서론.

제 2 절 연구 방법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중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언약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약 성경 속의 언약 왕국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언약의 체결과 갱신을 통해 진전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구약 성경 속에서 세 단계에 걸쳐 발전해 가는 모습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성경 속에 펼쳐지는 언약 왕국의 드라마를 추적함에 있어서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할 기본 개념들이 있다. 첫째, 성경의 궁극적 비전인 하나님 나라는 왕(주권), 백성, 그리고 땅(영토)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언약의 목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다. 셋째, 성경 속에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역사는 언약 백성의 반응에 따라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네 부분(창1-11장, 창12장-삿, 삼상-말, 마-계)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언약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성경공부 교재로 만들어 교회현장에서 여러 해 동안 진행해 보았다. 그 결과 매년 성경일독에 도전을 해 보지만 큰 그림과 흐름을 잡지 못해 성경일독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성도들이 쉽고 자연스럽게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성도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 현장에서 본 연구자가 만든 성경공부 메뉴얼에 근거해 진행한 성경일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범위와 분량을 생각할 때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4차 프로젝트까지 다루는 것은 부리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1차, 2차, 3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제 3 절 연구의 개요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 관점에서 보는 성경공부 매뉴얼을 만들어 성경일독 프로그램을 교회 현장에서 진행하게 된 배경, 내용과 진행과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의 중요성과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성경의 핵심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정의, 중요한 특징들, 그리고 두 개념의 상관관계를 메리데스 G. 클라인이 쓴 두 권의 책, ‘하나님 나라의 서막’(Kingdom Prologue)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God Heaven and Har Magedon)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1차 프로젝트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창세기 1-1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전개되는 기대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축소판으로, 성경 역사 속에 펼쳐지면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본 운영 원리와 핵심 가치들, 그리고 그 최종 결말이 무엇인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2차 프로젝트가 창세기 12장부터 사사기까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시도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실험 무대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정 정치의 이상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깨어져 가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6장에서는 사무엘서부터 말라기까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3차 프로젝트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왕정시대에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지만, 북 이스라엘 왕국과 남 유다 왕국의 역사는 그 미션이 또 다시 실패하고 말았음을 보여 준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종말에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

7장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세 번에 걸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요약하고, 교회 현장에서 진행해 본 성경일독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이 얻은 유익과 한계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 2 장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와 하나님 나라 관점의 중요성

본 연구자가 언약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교회들이 해가 바뀔 때마다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면서 성경읽기를 유도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성경을 완독한 성도들을 만나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게으름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둘째는 교회 현장에서 필요성 때문이다. 아직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은 영혼들이 죽은 후에 가서 살게 되는 미래의 내세적 영역으로만 오해하면서 현실적이고 사회적 이슈들을 외면한 채 오직 개인의 내면적인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자기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공부 교재를 만드는 중요한 동기를 제공해 주었다.

제 1 절 임상교회들

1. 나성한미교회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엘 몬테(El Monte) 시에 위치한 나성한미교회는 전형적인 이민교회로 이민 1세대인 그룹이 150여 명, 이민 2세대 그룹이 80여명, 그리고 이민 생활을 막 시작한 그룹이 50여명 출석하고 있었다. 당시 전통교회의 체질을 바꾸어

가며 재자훈련에 집중하고 있던 담임목사는 부목사로 있던 본 연구자에게 성도들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성경일독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라고 권면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성경진체를 언약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두 해 동안 강의 형식으로 진행해 보았다. 이 때 성경일독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도들은 두 해(2004, 2005년)에 걸쳐 총 100여 명이었는데, 강의를 통해서 그려주는 큰 그림을 그려가며 성경을 완독한 분들이 85명이나 되었다.

2. 사랑의교회

서울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사랑의교회는 대표적인 대형교회인데, 그곳에서 본 연구자는 일반 교구사역과 함께 법조선교회라는 특수사역을 맡아 5년 동안 섬길 수 있었다. 서초동 법조타운 근처에 위치한 교회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사랑의교회에는 등록된 법조인들만 250여 명 정도가 있었고, 법조선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격주로 모여서 기독교법조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나성한미교회에서 만들어 사용한 32주용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법조선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일독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해 보았는데, 결과는 나성한미교회에서와 비슷했다. 다만 법조선교회에서 진행한 성경일독 프로그램은 모임의 특성상 한 달에 한 번씩만 진행할 수 있었기에, 매년 참석자 가운데 성경 일독자가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법조선교회를 섬기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성경읽기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실제적인 사회번혁운동들, 즉 기독교법조인의 날, 클린인터넷 사역, 정감운동 사역 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을 실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었다.

3. 창훈대교회

정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창훈대교회는 전형적인 전통교회인데, 그곳에서 본 연구

자는 담임목사로 부임해서 동일한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매 시간에 성경일독학교 형식으로 2년 동안 진행해 보았다. 창훈대교회에서 성경일독학교를 진행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숫자에 비해 매년 성경을 일독하는 분들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약 20%). 그 결과 교회 안을 둘러볼 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나름대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분들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고 자신이 이해하기 쉽고 좋아하는 성경만을 반복해서 읽는 소위 ‘영적 편식 현상’이 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분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성경을 차례대로 읽다 보면 항상 막히는 부분들(레위기, 예언서 등) 때문에 고전하고 있었다. 목회자가 성경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가며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평신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 막히는 부분을 평생을 읽어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창훈대교회를 말씀의 굳건한 토대 위에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경일독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 저녁에매 시간에 강의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도들의 연령대는 20대 청년으로부터 80대 노인층까지 다양했다. 해마다 200여 명의 성도들이 성경일독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수강생들 중에 성경을 완독한 비율은 매 해 80퍼센트를 넘었다.

제 2 절 교재의 구성과 운영방식

1. 32주 용

다양한 사역이 펼쳐지는 교회의 현장들을 분석해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1년 동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0주 내외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교회들은 겨울 3개월(12월부터 2월까지)과 여름 2개월(7,8월) 총 20주 정도를 쉼과 계절축전의 시간으로 삼고, 이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던 모든 모임과 훈련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년을 단위로 교회 현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할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2주 정도로 보면 된다. 본 연구자는 성도들이 1년에 성경을 일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에, 교회현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32주 동안 성경 전체를 인약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32과로 구성된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었다.

2. 교재의 구성 방법

성경 전체를 개괄하는 기존의 교재들은 주로 권별(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이나 장르별(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예언서), 혹은 시대별(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가나안정복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환시대)로 살펴본다. 하지만 이런 분류방식을 가지고는 성경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흐름을 단절 없이 제대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존의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권별, 장르별, 시대별 분류법을 넘어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4차에 걸친 프로젝트로 분류하는 나뉠대로의 방법을 만들어 적용해 보았다.

3. 교재의 세부 내용

본 연구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님 나라의 1차 프로젝트로 보고, 이 단락을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1,2장), 하나님 나라의 실패와 회복에 대한 약속(3장),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충돌과 결말(4-11장)이라는 주제로 세분화하였다.⁵⁾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2차 프로젝트를 창세기 12장부터 사사기까지로 보면서, 이 단락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한 백성 만들기(창 12-50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출애굽기-신명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도 찾기(여호수아): 도전과 실패(사사기)로 세분화하였다.⁶⁾ 마지막으로

5) 하나님 나라의 1차 프로젝트(창1-11장)는 총 5과로 구성되어 있다. 1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2과. 인약이란 무엇인가? 3과. 하나님 나라와 인약의 상관관계. 4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 실패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1-3장). 5과. 여인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의 충돌과 결말(창4-11장).

6) 하나님 나라의 2차 프로젝트(창 12장-사사기)는 총 6과로 구성되어 있다. 6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아브라함(창12-25장). 7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이삭, 야곱, 요셉(창

는 사무엘서부터 말라기까지를 하나님 나라의 3차 프로젝트로 보고, 이 단락을 크게 왕정 제도를 통한 신정정치(의 실험과 실패(역사서)와 선지자들이 선포한 종말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예언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⁷⁾ 본 논문의 범위를 구약으로 제한했기에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4차 프로젝트는 신약성경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것으로 보고, 이 단락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사복음서), 교회를 통해 발전하는 하나님 나라(사도행전),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요한계시록)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4. 진행방식

성경일독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1시간 동안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 강의내용은 주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읽을 성경 분량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수강생들은 10명씩 한 그룹이 되어 조별로 앉아서 강의를 들었고, 강의를 끝나면 10분 동안 배운 것, 깨달은 것 그리고 적용 점을 함께 나누는 후 합심기도로 순서를 마쳤다.

제 3 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의 필요성과 유의점

1. 필요성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구원받은 영혼들이 죽은 후에 가서 살게 되는 공간적 장소 혹은 내세적인 영역으로 오해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유대인이 완곡어법으로 사용한

26-50장). 8과.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1: 율법(출1-40장). 9과. 훈련2: 성막, 제사법, 5대 제사(레위기-민19장). 10과. 훈련3: 7절기, 광야의 고난들(민20-신명기). 11과. 하나님 나라의 영토 만들기(여호수아): 도전과 실패(사사기).

7) 하나님 나라의 3차 프로젝트(사무엘상-말라기)는 총 10과로 구성되어 있다. 12과. 이스라엘 백성이 내세운 사울 왕의 실패(룻기, 사무엘상, 시1-41편). 13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모범(사무엘하, 역대상, 시43-106편). 14과. 솔로몬의 시대적 사명과 실패(왕상1-11장, 대하1-9장, 시107-150편). 15과. 북 이스라엘의 실패(왕상12-왕하25장). 16과. 남 유다의 실패(대하10-36장). 17과.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1(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18과.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2(이사야, 미가). 19과.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3(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20과.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4(에스겔, 다니엘). 21과.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5(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늘’을 그 실제 지칭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하늘 혹은 공중’의 공간적 의미로 오해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던 ‘통치나 다스림’의 의미가 아닌 ‘영토나 영역’의 공간적 의미로 오해하기 때문이다.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스르는 갖가지 현상들, 즉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와 부조리, 인본주의적 사상과 가치관들, 자아도취적이고 쾌락적인 문화들, 황금만능주의에 물든 자본주의 체제,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단체와 국가들, 생태환경의 심각한 파괴 등의 현실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채 오직 개인의 내면적, 영적 구원에만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죄용서와 영혼구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환경, 즉 영적일 뿐 아니라 신체적, 물질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조건들이 마련되는 총체적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2. 의미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만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정신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집단들(국가, 민족, 국제기구, 정당)과 세속적 가치관들을 비판하고 폭로하여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단체와 사람들에게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해 주고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야직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그리스도인들의 실존과 교회 공동체

8) N. T. Wright,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London: SPCK, 1996) 202.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행위자(agent)’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유익들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의 유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큰 그림과 흐름을 잡으면서 성경을 일독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회의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초창기부터 믿음의 선배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고, 이런 현상이 기독교의 대 사회적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성도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 할 때 보면 성경을 완독한 분들은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영적 게으름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지 못한 교회의 책임도 크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각 부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과 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게 이해하게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

둘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복음과 믿음에 대한 바른 시야와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 한국교회 안에는 믿음과 행위, 복음과 율법의 상관 관계를 무시한 채,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값싼 복음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 교회 안에는 이 땅에서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또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사회적 이슈, 즉 부의 독점, 가난한 자, 불평등, 인권 등의 문제에는 도부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 한국교회의 끝없는 추락과 교인들의 윤리적 실패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의 부재라는 성경적, 신학적 요인들이 함께 얽혀 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 주제인 언약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보면 성경적 세계관과 윤리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분을 왕으로, 즉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 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가까이 십자가와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희생의 결단과 헌신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없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사람은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로 제시한 공의와 인애와 믿음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 결국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복음과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성경적 세계관과 윤리관으로 건고하게 부장시켜 준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모든 영역에 가져오게 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진리를 파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국가적 차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자연계를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를 포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깨달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부조리, 잘못된 관행과 악습, 제도적 병폐, 노동자 인권, 자연환경, 생태환경, 생명윤리 등 현대사회의 모든 이슈를 포괄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제 3 장

성경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언약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 곧 왕이시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하늘을 자신의 거주지로 정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 후손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언약의 성취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였다. 성경 역사의 드라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언약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각 시대를 통해 발전해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제 1 절 하나님 나라

1.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⁹⁾ 신약에도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¹⁰⁾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개념이다.¹¹⁾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

9) G. R. Beasley-Murray, *예수와 하나님 나라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42. 그에 의하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단지 아홉 구절에서만 나온다(시22:29;103:19;145:11-13;단3:33;4:31;욥2:1;대상29:11).

10) George E.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 박미가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25.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에서는 바실레이아(βασιλεια)로 표현되고 있다.

11) G. K. Beale, *신약성경 신학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19; George E. Ladd, *신약신학 (New Testament Theology)*, 신성종,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63.

해서 나라(מַלְכוּת, malkuth)라는 단어가 200여회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가 인간 왕에게 적용될 때는 주로 왕권, 통치, 지배 등을 의미하고,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의미한다.¹²⁾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주 왕(מֶלֶךְ, melek)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피조 세계까지 확대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자신의 주권과 통치권을 확립하셨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비롯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표현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편, 선지서 등 구약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출15:18; 민23:21; 신33:5; 왕상22:19; 삼상8:7; 시93:1; 96:10; 97:1; 사6:5; 24:23; 33:22; 렘10:7).¹³⁾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에 대한 표현과 용례가 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기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구약의 저자들이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린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⁴⁾ 실제로 구약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중요한 사건들, 즉 창조기사,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 행위, 이스라엘과 맺은 그의 언약, 왕정 시대 이전과 왕정 시대의 정치적 제도,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이방 나라로 흩으심, 그리고 인류 역사에 대한 지배와 미래의 모든 반대 세력에 대한 심판 예언 등은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한편,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현재 각자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실체이기도 하고(롬14:17), 예수가 제림하실 때 그분의 백성들에게 수여되는 유업이기도 하다(마25:34). 예수는 자신의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현재' 들어가 있다고 말씀(눅16:6)하시는 동시에 그 나라는 예수의 제림 때에 믿는 자들이 들어갈 '미래의 영역'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다(마8:11). 신약의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의 복음 선포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음을 확고히 증언해 주고 있

12) George E. Ladd,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Crucial Questions About the Kingdom of God)*, 신성종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85.

13) G. von Rad, "מֶלֶךְ" "מַלְכוּת", G. Kittel and G. Friedrich, ed., *TDNT*, 108.

14) Beasley-Murray, *예수와 하나님 나라*, 42-43.

다. 마가는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총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소개하고 있고 (1:15), 마테는 예수의 복음 선포 사역을 기술하는 시작과 끝 부분에서 그 복음 선포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음을 밝힌다(마4:23;9:35). 누가는 예수의 사역 마지막 기간 동안 그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고 증거한다(행1:3).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의 다른 책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 가르침의 중심 주제도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속적으로 전한 복음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고(19:9;20:25), 그가 로마에 거주하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한 복음의 중심 주제도 에베소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였다(28:23,30-31).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들에서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언급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살전2:10-12;갈5:21;고전4:20;6:9-10;15:24,50;롬14:17).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이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현재 들어감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제림 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영역이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기록된 각각 구절들은 위의 세 경우들 중 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¹⁵⁾

2.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

일반적으로 국가의 세 요소라고 하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그 나라가 유지되듯이 성경의 궁극적 비전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왕의 주권, 그의 백성, 그리고 왕과 백성이 함께할 영토(땅)가 구비되어야 한다.¹⁶⁾

가. 왕의 통치(주권)

성경의 창조 기사는 모든 피조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고, 하

15)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30.

16) G. Goldsworthy,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Gospel and the Kingdom)*, 김영철 역 (서울: 성서유니온, 1988) 57-58.

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모든 피조세계를 아우른다는 절대적 진리를 교훈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한 주권과 우주 만물에 대한 궁극적 소유권을 가지시고, 인류 역사를 포함한 광대한 우주의 드라마를 펼쳐 가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왕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던 인간 왕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데서 등을 돌리게 되었고, 그 결과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악한 자, 즉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요일5:19). 실제로 구약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반역,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죄악으로 얼룩져 하나님의 진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세계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늘의 주권자의 개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회복될 필요가 있다.¹⁷⁾

구약 성경은 주 이호와와 왕 되심에 대하여 일반 왕권과 특별 왕권을 말하고 있다. 전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와 피조세계 전반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능력과 통치를 말하고, 후자는 여호와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언약관계 가운데서 행사되는 신정 통치를 의미한다.¹⁸⁾ 성경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굳게 자리를 잡고 있다.

한편,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의 날’에 메시아적 왕이 나타나 모든 악한 세력들과 이방민족들을 쳐부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실현될 것임을 내다보았을 때(사9:1-7; 11:1-9; 미5:1-4), 신약의 지지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종말론적 예언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였다(마8:17; 요12:37-38; 행8:32-33).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자신의 말씀 선포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현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였다.¹⁹⁾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17) Ladd,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88.

18) G. Vos, *하나님 나라와 교회 (The Kingdom of God and Church)*,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15-20.

19) Ladd,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94.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 예수의 축기와 치유의 사역은 죄와 죽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통치를 몰아내고 사탄의 통치 아래 고난 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²⁰⁾ 사탄으로부터의 결정적 승리와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의 온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²¹⁾ 그러나 죄와 죽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의 최후 종말과 인간이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만끽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의 재림(파루시아)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계20:10-15;22:3-5).²²⁾

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백성은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공동체, 즉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출6:7상)라는 말씀에서 묘사되고 있는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꿈꾸고 계셨다.²³⁾ 타락 전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는데, 타락 후에는 여자의 후손인 셋, 에녹, 노아, 셈으로 이어졌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새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창17:8)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반역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

20)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79. 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의 축기와 치유사역은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제화(actualization)요 시위(demonstration)이며, 그것에 대한 해설(commentary)이자 예시(illustration)이다.

21) Ibid., 80.

22) Ladd,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91.

23) Ilmer A. Martens, *하나님의 계획 (God's Design)*, 김의원 역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0) 92-93. 학자들은 이 문장을 일컬어 언약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식의 다양한 형태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약 25회 정도 나오고 있다(창17:8;출6:7;레26:12;신29:13;신26:16-19;렘7:23;11:4;24:7;30:22;31:1;31:33;32:38;겔11:20;14:11;36:28;37:23;롬9:25-26;벧전2:9;계21:3 등).

신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 민족적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사4:3;6:13;17:6;슌2:7,9;3:12-13)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사45:22;55:5;56:6-8)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밝혔다.²⁴⁾

신약에서 예수는 자신의 메시지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선포하셨고(마8:11), 자신의 대속적 죽음과 새 언약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인 교회를 세우셨다(마16:18-19).²⁵⁾ 주님이 세우신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더 이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었다(참조. 마21:43).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었다(행16:31;롬10:9;고후5:17;벧전2:9).

다. 땅(영토)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에덴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영토였다. 그 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장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 확인되었다(창12:1-3).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12:7;15:7;17:18)는 약속과 그 땅의 경계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테 강에 이르는 지역(창15:18)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창26:3;28:4,13;35:12;50:24).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출6:8)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라는 고백을 통해 증언하였다(신26:9).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의 경계(창15:18)를 고려해 볼 때, 여호수아 휘하의 초기 정복과 더불어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수23:14), 출애굽기 23장

24) Martens, *하나님의 계획*, 296-297.

25)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179, 182-184.

31절에 나타난 광활한 지역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된 때는 오로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때였다(삼하8:3;대하9:26).

한편,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이었지만²⁶⁾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 완수가 필요한 곳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²⁷⁾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생활양식을 요청하셨는데, 이러한 요구는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인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신4:5,14;5:31;6:1;12:1)는 표현형식으로 선포되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신8:1)고 외쳤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쁨으로 받아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면, 가나안 땅은 더럽혀질 것이고(레18:24-25;신21:23;24:4),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내란과 전쟁, 질병과 자연재앙 등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신28:15-68).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들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흠으실 것”이다(신28:63-64).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땅 상실에 대한 경고는 훗날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버지않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선언으로 바뀌었고(왕상14:15;암7:17;렐22:28-29),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의 삶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 땅을 상실하고 말았다(왕하17:23;25:21). 포로시대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의거하여 이스라엘이 포로에서부터 본토로 귀환할 것을 선포하였고(렐12:14-16;16:14-15;겔36:8-15),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용한 주전 538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포로 되었던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 왔다(스1:2-3).

26)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묘사할 때, “풍성함, 부요, 아름다움, 안식의 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출3:8;민13:27;신6:3;11:9).

27) Martens, *하나님의 계획*, 154-155.

신약 성경에서는 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땅의 기업”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땅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신다(마5:5).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의 땅은 물리적 실체로서의 땅이 아니라 풍요와 안식이 있는 축복된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신약성경에서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선물적 성격인 “영혼의 안식”(마11:29), 풍요로운 삶(요2:1-12), 영생의 축복 등을 의미한다.²⁸⁾ 그러나 신약성경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땅의 주제를 상징적, 영적 의미로만 국한 시키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맞이하게 될 현재 이 세계의 파멸적인 최후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 이 땅에 대한 최후 심판의 날에는 산들과 섬들이 뿌리 채 뽑히고 두루마리 책이 휘발리는 것처럼 하늘이 옮겨가는 식의 천제지변이 일어날 것이고(사34:4;계6:14), 현재의 하늘과 땅은 영원히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과 현저하게 달라서 옷을 벗듯 그리고 옷을 갈아치우듯 소멸할 것이다(시102:26;사13:13;34:4;학2:22;막13:31;히12:26-27;벧후3:10-13;계6:14;20:11;21:1). 땅이 역사적으로 종말론적인 최후를 맞이할 것임을 경고하는 이와 같은 선언들은 현재의 물리적 우주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우주가 무에서 창조될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늘과 땅은 종말의 때에 우주적 격변 속에서 격란의 흔들림과 마지막 심판의 티는 듯한 불구덩이를 겪고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²⁹⁾

3.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일관된 흐름의 역사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섭리에 근거하고 있다. 우주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시간의 한 부분을 살아가는 인간은 우주 전체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다만 각자 자신이 속한 한 시대를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

28) Martens, *하나님의 계획*, 331-332, 338-339.

29) Meredith G. Kline, *하나님 나라의 도래 (God, Heaven, and Har Magedon: A Covenantal Tale of Cosmos and Telos)*, 이수영 역(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0) 45-46.

의 역사가 인간들의 부의미한 행동의 연속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 속에서 역사가 바라보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진행되는 것임을 근본적으로 선포하고 있다.³⁰⁾ 성경은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를 확실하게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하여 이 세상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아무런 기복이 없는 평면의 역사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다양한 역동성을 가진 굴곡의 역사로 펼쳐진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책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언약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나라가 발전하기도 하고 위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백성의 심각한 타락과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해 적어도 세 번의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 세 번의 중대한 위기는 바벨탑 사건, 사사시대의 타락, 말라기 시대의 타락을 통해서 찾아왔고,³¹⁾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꿈은 산산이 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의 결과로 위기에 처한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회복과 함께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4.이해를 돕기 위한 절분들

1.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의 개념은 어떤 것이었습

30) 송제근,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 (서울: 두란노, 2003) 99.

31) 이것은 필자가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개과정을 크게 네 부분 나누는 근거가 된다. 필자는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네 번의 기대한 프로젝트(창1-11장, 창12-삿, 삼상-말, 마-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cf. 송제근,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 99-100. 송제근 교수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는 섭리의 변화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세 번의 정분(창1-11장, 창12-말, 마-계)으로 구분하고 있다.

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를 죽이시 들어가는 곳이지, 지금 살아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곳으로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2.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성격은 ‘이미, 아직’(already, but not yet)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간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무시하고 내세지향적인 신앙태도만을 견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무시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말해봅시다.

3.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데 있어서 언약 백성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4.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위기는 언제, 누구 때문에, 왜 찾아왔습니까?

5. 이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무런 기복이 없는 평면의 역사가 아니라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며 역동적으로 펼쳐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2 절 언약

1. 언약의 정의

보통 “언약”(covenant)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베리트(ברית, berith)라는 단어인데, 구약의 헬라이어 역본인 70인역(LXX)과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히브리어 베리트를 디아췌케(διαθηκη, diatheke)라는 헬라이어로 번역하고 있다.³²⁾ 베리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32) Meredith G. Kline, *하나님 나라의 시작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s for a Covenantal Worldview)*, 김구원 역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07) 20.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히브리어 베리트를 두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의미하는 쥬췌케(συνηθηκη, syntheke)로 번역하지 않고, 유언에 의한 증여를 뜻하는 디아췌케(διαθηκη, diatheke)라는 헬라이어로 번역한 이유는 마치 디아췌케가 유언자의 죽음으로 발생할 법률적 상황인 유산 증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듯이 성경의 언약이 하나님의 발의에 의한 주권적(일방적) 선포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들이 재서되어 왔지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오히려 베리트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³³⁾

성경의 베리트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의무와 그것의 이행을 촉구하는 맹세 서약의 성격을 가진다. 베리트의 기초적 의미가 이행 의무를 수반하는 맹세 서약이라는 사실은 베리트라는 용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등장되는 개념들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베리트를 지키다” 혹은 “베리트를 어기다”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³⁴⁾ 또한 베리트의 동의어로 맹세 서약 혹은 저주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도 베리트의 개념에 있어서 맹세 서약이 얼마나 중심적인가를 엿볼 수 있다(창26:28; 신29:12; 겔16:8). 이와 같이 맹세 서약이 베리트의 핵심 개념을 형성했기 때문에 베리트를 맺고 준비하는 과정이 성경에서 종종 맹세 의식의 이미지인 “베리트를 자르다”(ברית כרת, cut a berith)로 표현되고 있는데,³⁵⁾ 이 문구가 언약 체결을 가리키는 속어가 된 것은 맹세를 어기는 사람이 받게 될 저주를 상징하기 위하여 동물을 도살하고 갈기갈기 자른 맹세 의식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방적 발의로 집행된 맹세 서약으로서의 베리트에 대한 이해는 고대 근동의 정치적 조약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언약들 가운데 모세 언약 같은 경우는 제국의 대군주와 도시국가의 군주 사이에 맺은 소위 종주권 조약(suzerainty-vassal treaty)의 구성 요소인 서두(preamble), 역사적 서언(historical prologue), 기본적 규정들(stipulations), 증인 서약(the pledge of witness), 축복과 저주의 형식(the curses and blessings formula)을 취하고 있다.³⁶⁾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베리트의 기본 개념에는 하나님의 일방적 발의로 집행된 맹세 서약으로 “하나님이 부여한 의무와 그에 따른 제제들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적 측면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³⁷⁾

33) Martens, *하나님의 계획*, 96-97.

34)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약*, 21.

35) Ibid.

36) Bruce K. Waltke, *구약 신학 (An Old Testament Theology)* 김기탁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480-481; Gary Edward Schnittjer, *토라 스토리 (The Torah Story)*, 박철현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4) 304; 송재근,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 149-158.

그러나 성경의 배리트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선포하는 의무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상호 이해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협상의 형식을 띄고 있고, 언약 체결의 목적도 상호 관계의 증진과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쌍방적’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³⁸⁾ 실제로 언약 체결을 다루는 부분에서 언급되는 ‘맹세로 부과된 의무’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의부의 내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출31:16; 민25:13; 삼하24:5; 왕상20:34; 시50:15), 의무를 지킬 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된 삶의 결과’를 의미하기도 한다(창17:4; 출23:32; 욥5:23; 시83:5; 사28:15; 겔30:5; 호12:1).³⁹⁾ 그렇기에 성경에 나타난 언약이 그 체결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종주권 조약과 유사한 측면이 매우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도 알아야 한다. 실제로 성경의 언약에는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종주권 조약에서는 조약 불이행 시에 받을 저주를 선포한 뒤, 속국이 그 조약을 깨뜨릴 경우에 다시 용서를 받고 회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수 없다.⁴⁰⁾ 그러나 성경의 언약에서는 언약적 저주 후에도 종주국의 왕인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인 은혜가 다시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의 언약에서는 속국에 해당하는 언약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언약이 파괴되었을 경우 회복의 방법으로 제사제도가 제시되었는데, 성경의 제사제도는 일반종교에서 볼 수 있듯이 화난 신을 달래는 절차가 아니라 파괴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희생제물을 통해 언약을 깨뜨린 행위를 보상하는 제도였다는 점도 특별하다.⁴¹⁾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과는 달리, 성경의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을 인격적 파트너로 삼아 양자 간에 공적 관계, 즉 왕이신 하나님과 왕을 섬기는 백성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 목표가 성취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면 언약 백성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경 안에 나타나는 ‘언약’의 용례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의 배리트

37)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23-24.

38) Ibid.

39) Ibid., 24.

40) 송제근,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 21.

41) Ibid.

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주권적 배품과 하나님이 부여한 의무에 대한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 즉 순종으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약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⁴²⁾

2. 언약의 특징

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근거한 주도성 혹은 일방성

기본적으로 언약은 인격적인 두 당사자 간의 공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의 근본적 특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일방적 혹은 무조건적 측면을 고려해야만 한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이 때로는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처럼 개인을 상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나이산에서와 모압평지에서 그리고 에레미야의 새 언약에서처럼 민족을 상대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언제나 언약의 주체로, 즉 언약을 발의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⁴³⁾ 이런 측면에서 성경의 언약들은 하나님에 의한 “주도적 혹은 일방적”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언약 혹은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의 언약 또는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창6:18;17:2,4,7,9,19;출19:5;사56:4,6;59:21;렘11:10;겔16:60,62;17:19).⁴⁴⁾

성경에 기록된 천지 창조 이야기는 성경의 언약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될 수 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말해 준다. 창조 기사에게 드러난 통치의 위계질서는 모든 피조세계가 창조주의 절대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피조세계를 아우르는 절대적 진리를 교훈한다. 비록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통치

42) 이 정의는 필자에 의한 것이다. cf. O Palmer Robertson,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 (The Christ of the Covenants)*,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23. 그는 언약을 “주권적으로 사역되는 피로 맺은 약정”으로 정의한다; 송제근, *오경과 구약의 언약 신학*, 20. “언약은 인격 당사자 간에,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43) John P. Milton,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God's covenant of blessing)*, 이근호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2) 16-18, 23.

44)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300, 376-381.

위계상 그들 위에 있는 인간을 위해 성별되었지만, 인간 자신은 모든 것을 자신의 발아래 두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피조세계를 다스릴 뿐이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피조 세계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일종의 봉신 왕(vassal-king)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궁극적 소유권을 갖고 계신 창조주의 권위 아래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언약왕국을 우주의 제왕에게 바칠 거룩한 의무가 있다.⁴⁵⁾ 창조기사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창조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위한 대등한 파트너로 세워졌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실제적 진행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타락 이후에 나타난 언약들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났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주권적 은혜를 베푸시고 여자의 후손의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창3:15).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그와의 언약 수립을 통한 복된 미래를 약속해 주셨다(창6:18;9:9). 족장들의 기사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후손들을 주시며 그를 통해 세상의 열방들이 복을 받도록 하실 것이라는 은혜의 약속을 해 주셨다(창12:1-3). 모세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의 명령도 이미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를 베푸셔서⁴⁶⁾ 구속하신 백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지,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다.⁴⁷⁾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간의 친밀한 관계는 이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시작의 결과(sequel)로서 시내산 언약을 통한 율법의 교훈과 계명들이 주

45) Kline, *하나님 나라의 시막*, 69.

46) 출애굽기 15:13과 20: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hesed*, hesed)로 인도하시고(15:13), 십계명을 명령하는 가운데서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20:6)으로 묘사되고 있다.

47) Walter C. Kaiser, Jr. *구약성경 신학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최종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153-157; Martens, *하나님의 계획*, 101-102.

이진 것이다.⁴⁸⁾ 다윗 왕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권적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왕조의 위(位)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다(삼하7장). 이스라엘과 유다 양국이 멸망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주도되는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다(렘31:31-34). 이와 같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언약들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근거한 일방성 혹은 무조건성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인간의 언약적 책임과 순종의 중요성

성경의 언약을 정의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의 원리, 즉 은혜의 원리가 아닌 행위 원리에 근거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 근거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의 기본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율법적이고 거래적 원리인 공로(merit)와 정의(justice) 원리와 양립될 수 없다는 사실과 인간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모두 완수했다 하더라도 피조물인 인간은 여전히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에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내세운다.⁴⁹⁾ 이러한 논리적 근거 위에 그들은 타락 이후의 구속적 언약뿐 아니라 타락 이전의 아담 언약을 포함해 모든 성경의 언약을 은혜 원리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로 묶으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⁵⁰⁾

그러나 성경의 모든 언약에서 행위 원리의 작동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과는 반대로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언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위 원리를 사용하셨다는 것과 오히려 행위의 원리가 은혜의 복음(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무조건성 혹은 일방성)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48) 사내산 언약을 통해 주어진 율법의 계명들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 구속(redemption)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율법의 계명들은 범죄한 인간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획득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표현하고 이미 수립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된다.

49)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154.

50) Ibid.

다.⁵¹⁾ 창조주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 따르면 인간이 창조 언약의 축복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 원리, 즉 하나님의 예외적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였다(창2:17). 만약 인간이 선악과가 상징하던 “시험 검증이라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면 그는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⁵²⁾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중보된 언약도 약속의 원리가 아닌 율법, 즉 행위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지상 왕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명기에 자세하게 명시된 행위 원리들을 순종하며 따라야 했다. 신명기에 명시된 행위의 원리들은 후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시내 언약을 갱신할 때 조약문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인데, 그 언약 갱신 의식의 절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과 악,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기억하며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확인해야 했다(신29장).⁵³⁾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후 여러 세대를 통해 반복하여 언약 맹세를 어겼다. 구약의 역사가들은 신명기 조약에서 불순종의 대가로 경고된 저주들이 어떻게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는지 너무도 생생하게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충성의 서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위를 심판하시면서 언약 형벌로 그들을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부터 동쪽의 유배지로 쫓아내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의 종 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수없이 권면했지만 그들은 끝끝내 신지자들의 안타까운 호소와 외침을 외면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거룩한 땅에서 축출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은 은혜 원리가 아니라 행위 원리가 언약의 중요한 운영 원리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⁵⁴⁾

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언약적 책임(행위)의 상관성

51)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155.

52) Waltke, *구약 신학*, 303.

53) Robertson,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 178-181.

54)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156.

그러면 성경의 언약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은혜와 행위의 상반된 두 원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 언약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에 의한 주권적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원리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⁵⁵⁾ 은혜는 언제나 영원한 구원, 즉 영원한 하늘 왕국에 입성하기 위한 유일한 원리로 남아 있다. 반면에 율법과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조화로운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행위 원리가 가지는 교훈적 효과는 율법 준수와 경건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에 있다.⁵⁶⁾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은혜 원리와 행위 원리의 두 요소를 배타적이기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과 행위 원리는 전적으로 양립 가능하며, 하나님은 언약의 구속역사를 펼쳐 가십에 있어서 언약의 핵심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우선성과 포괄성의 기반 위에서 인간이 언약적 책임(율법 준수와 행위)을 다할 때 이 땅 위에 기록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는 왕국의 운영 방식을 택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뿌리가 되는 “은혜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언약의 선악과 명령과 관련하여 순종여부를 가늠케 하는 시험적 성격과 타락 이후의 구속적 언약들 안에 있는 “행위와 정의(work-justice)”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⁵⁷⁾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인간의 행위와 관련해서만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의미는 인간이 언약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것이다.⁵⁸⁾ 복음의 은혜는 언약의 요구를 지킬 책임이 있는 인간을 상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복음은 언약의 파기자, 즉 언약 율법의 위반자로서의 인간을 전제한다. 따라서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 계명에 대한 위반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고 그것을

55)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303, 376, 380.

56) Ibid., 394-395.

57) Ibid., 159. 클라인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 속에는 쌍방 간의 “계약적” 측면과 하나님에 의한 “일방 언약적” 측면이 함께 나오고 있음을 관찰하면서, 성경의 배리트 개념에는 하부 구조인 “은혜 원리” 위에 상부 구조인 “행위 원리”가 있다고 주장한다(28).

58) Ibid.

극복하려고 한다. 은혜는 이전 인간의 언약 파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기록한 진노를 샅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약의 축복 규약에 약속된 선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복음의 은혜는 무공로(unmerited)가 아니라 반공로(demerit)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던 것, 즉 언약이 규정하는 모든 의무에 대한 순종을 통해 자기 백성의 의무와 책임을 대신한 결과로 주어졌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⁵⁹⁾

3.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들

1.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covenant)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promise) 혹은 기업이나 국가 간에 체결하는 계약(contract)을 비교할 때, 비슷한 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고, 인간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3. 기본적으로 언약이 인격적인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책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지만, 언약의 근본적 특징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일방성 혹은 무조건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하나님에 의한 주권적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원리라면, 인간의 언약적 책임과 행위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5. 성경의 언약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은혜와 행위의 상반되는 듯한 두 원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율법과 복음은 서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59)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160. 클라인은 반 공로(demerit)와 무 공로(unmerit)의 의미를 구분한다. 무 공로는 단지 공로의 부재, 즉 공로가 없음을 의미하지만 반 공로는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위반하고 파기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중립이라는 것(무 공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인(공로)이거나 죄인(반 공로)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무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반 공로의 문제이다.

제 4 장

하나님 나라의 1차 프로젝트(창1-11장)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부터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개념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에덴동산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나라라는 명시화된 문자적인 언급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창조기사에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발견된다. 특히 창세기 1-2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존재하신다는 하나님 나라 통치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혜와 은혜로 통치하면서 그의 창조된 세계 속에 계속하여 개입하신다는 사실에서 매우 핵심적으로 드러난다. 창세기 1-11장까지는 창조사역의 정점으로 에덴동산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창1-2장),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초래된 하나님 나라의 위기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창3장), 그리고 두 왕국으로 대표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충돌과 그 결말(창4-11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제 1 절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창1-2장)

1. 우주 만물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와는 창세기 1장에서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엘로힘(אלהים, Elohim)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엘로힘은 우주의 어떤 것보다 높으신 만왕의 왕으로 광대한 창조의 드라마를 주관하신 분이시다. 창세기 저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창2:1)는 말로 엘로힘의 창조 사역을

요약하면서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 분만이 피조세계의 유일한 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권을 가지신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의미한다.⁶⁰⁾ 이것은 모든 피조세계가 창조주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피조세계를 아우른다는 절대적 진리를 교훈한다. 또한 이것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 존재하는 창조 설화 혹은 우주기원론⁶¹⁾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해, 달, 별, 바다, 산, 땅, 채소, 다산, 생명과 죽음 등 자연계를 비롯한 피조세계의 모든 힘들을 통합하고 계신 유일한 주권자임을 교훈한다.⁶²⁾

2. 이 땅의 대리통치자가 된 인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왕 같은 지위를 선물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에 암시되어 있다(창1:26).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אֵלֶּם)대로⁶³⁾

60) W. A. VanGemen, *구약계시의 발전사 I (Progress of Redemption)*, 안병호, 김의원 역 (서울: 성경읽기사, 1993) 58,63. 벤게베렌은 창조기사가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분명한 신조,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분이 인간을 선택하여 그분의 감독 하에서 피조세계를 대신 통치하도록 위임하신 위대한 왕임을 각인시키는 신앙고백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61) A. Heide, *The Babylonian Gene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James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4-5. VanGemen, *구약계시의 발전사 I*, 58 제 인용. 고대 근동의 바벨론이나 이집트에서 발견되는 창조 설화 혹은 우주기원론의 내용은 다수의 신이 최고의 권좌를 놓고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다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패권을 차지한다거나, 다수의 신이 함께 권력을 나눠 가진다는 만신전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다는 이스라엘의 신관과는 뚜렷하게 대조된다.

62)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49.

63) Walter C. Kaiser Jr, *구약성경신학 (Old Testament Theology)*, 최중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105. 카이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אֵלֶּם אֱלֹהִים)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와 대화의 가능성”과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책임 있게 다스리고 지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다. cf. VanGemen, *구약계시의 발전사 I*, 73. 벤게베렌은 형상(אֵלֶּם)이라는 말 속에는 “창조주께 대한 책임성”(창 1:28; 2:16-17의 계명들 속에 암시되어 있음), “인간의 존엄성”(하나님의 왕위성과 위엄에서 비롯된 것), 그리고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W. Eichrodt, *구약성서신학 II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ume two)*,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193. 아이히로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이 역사적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에게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하셨다(창1:28).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이 땅의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⁶⁴⁾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왕권은 우주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했다. 인간이 피조세계에 행사하는 통치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부여 받은 것이기에, 인간은 그 통치권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했다.

3. 에덴동산에서 출범한 하나님 나라의 기본 패턴

에덴동산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특별히 조성하신 이유는 그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범죄하지 않은 상태의 아담과 하와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완전한 환경으로 예비하신 땅인 에덴동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⁶⁵⁾ 에덴동산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

가. 에덴동산에 세워진 질서와 비전

창조 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성취했고, 창조된 세계는 오직 그 분의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었다. 또한 창조 시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훗날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아들을 통하여 절정의 방법으로 말씀하셨다(히1:1-4;3:1-6).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섬김과

채험을 통해 경험한 것들, 즉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64)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Texas: Word Books, 1987) 33.

65)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82. 클라인은 태초의 에덴동산에 세워진 왕국을 신정국가(theocracy)로 규정하면서 여기에는 백성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통치 뿐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물리적 영토개념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충성은 그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을 요구한다.

(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에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고 왕의 계명들과 율법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요구받았던 것처럼(신6:4-5;30:20),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의 중앙에 세워져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도록 도전받았다(창2:9;3:3).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⁶⁶⁾ 어떤 식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중요한 핵심은 그 나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종의 표지(sign)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인간 왕 아담 사이에 세워져 있는 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에덴동산 중앙에 세워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대리 통치자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유일한 왕으로 계시면서 자신에게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해야만 했다. 만약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자신의 왕적 권위가 궁극적이고 절대적 권위인 하나님께 종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지혜를 활용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림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장차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통치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론적 축복,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였다.⁶⁷⁾

66) Wenham, *Genesis 1-15*, 63. 학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עץ הדעת טוב ורע)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의 의미에 대해서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지칭하는 것,”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아는 도덕적 분별력,” “하나님과 같은 진지(omniscience)의 능력,” 혹은 “지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웬함은 이 문구가 맡겨주신 피조세계를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하는 대리 통치자 아담의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67) Waltke, *구약신학*, 304;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152-153.

(2) 생명나무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기를 소망하시면서 피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다. 만약 대리 통치자 아담이 왕이신 하나님을 진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지혜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왕의 말씀을 진직으로 신뢰하며 믿고 따를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동산의 중앙에 또 다른 나무인 생명나무를 세워 두셨다(창2:9).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삶, 즉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게 될 영생의 삶을 상징한다.⁶⁸⁾ 실제로 창세기 3:22에서 생명나무는 영생을 가져다주는 나무로 간주되고 있고, 훗날 구속 역사의 계시에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회복된 동산의 완성된 영광을 묘사하는 문맥에서 다시 등장한다(겔47:7; 계2:7; 22:2).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미래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된 세계가 지금의 상태로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명의 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⁶⁹⁾

나. 인간이 지켜야 할 명령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왕이셨지만(창1:1),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통치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이제 인간은 위임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었다.

68) Waltke, *구약신학*, 301;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136. 클라인은 하나님의 하늘 영광이 생명나무를 통해 이 세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 나무들은 자신의 영광을 인간도 누리게 사용할 수 있음과 자신과의 교제 속에 누리게 될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69) VanGemeren, *구원계시의 발전사 I*, 74-5.

(1) 안식일 준수 명령

안식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데(창2:1),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은 지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주의 궁전에 입궁해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시작하기 위함이었다.⁷⁰⁾ 안식일을 엘로힘 하나님의 왕위 즉위식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주적 궁전의 지상 모형인 언약궤 위에 좌정하시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고(대상28:2;시132:7,8;사66:1),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한 사건을 왕이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안식일적 쉼을 선물로 주는 사건으로 설명되고 있다(신3:20;12:9;왕상8:56)는 사실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⁷¹⁾

인간은 안식일을 창조주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만 했는데(창2:2), 인간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권과 주권이 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했다. 비록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있지만, 인간은 일종의 봉신왕(vassal-king)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다스리고 자신의 왕국을 제왕에게 바칠 의무가 있음을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안식일 준수를 통해 늘 일깨워야만 했던 것이다.⁷²⁾

(2) 문화 명령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반복해서 설명하신다(창1:26,28).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섯 가지의 명령 중 생육, 번성, 충만은 인간의 자손번식을, 정복과 다스림은 인간의 자연개발로 이해할 수 있다.⁷³⁾ 인간은 왕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기쁨부음 받은 종으로 세상에 보내진 것이다. 이 땅에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자신들과 같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존재들을 세상에 충만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번영을 위해 “호의적인 동시에 도전적인 세상에서 인간 두뇌와 근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테초의 파라다이스를 우주적인 도시”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⁷⁴⁾ 다시 말하면 이 땅 위

70) Kline, *하나님 나라의 시작*, 43, 63.

71) Ibid., 63-64.

72) Ibid., 69.

73) 이종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창1:28;2:15)의 신학적 고찰,” *구약논단* Vol 8, 2000, 18.

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성취할 것인가? 첫째, 결혼제도를 통해서이다(창 2:18,24).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남자와 여자(창1:27)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재정하신 결혼제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후손들을 낳음으로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계승하며 발전시켜 나갈 책임이 주어졌다.⁷⁴⁾ 둘째,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문화명령을 성취하는 삶을 통해서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동산으로 이끄신 목적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에덴동산을 보호하는 제의적 사명과 에덴의 지경을 넓히고 그곳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문화적 사명을 위해서였다.⁷⁵⁾ 먼저 인간에게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편안히 쉬면서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었다.⁷⁶⁾ 또한 인간은 에덴동산의 지경을 넓히고 그곳의 아름다움을 가꾸어가는 문화적 사명을 성취해야 했다.⁷⁷⁾ 에덴동산을 시작으로 헤서온 세상으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은 결혼 관계를 통한 후손 번식의 과정(창2:24)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땅에서의 문화적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창2:15).

74)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107.

75) Robertson,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85.

76) Waltke, *구약신학*, 256;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103.

77) Wenham, *Genesis 1-15*, 67. 15절의 "...에덴동산에 두어..."라는 표현에서 "두다"는 8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נָתַן (to put, place) 대신 $\text{נָחַ$ (to rest)가 사용되고 있다. 동사 $\text{נָחַ$ 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쉬이나 안진(God's rest or safety)의 의미(창19:16;신3:20;12:10;25:19)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것의 드려짐(the dedication of something in the presence of the Lord)의 의미(출16:33,34;레16:23;민17:4;신26:4,10)로 사용되고 있다.

78) Ibid. 또한 15절의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표현에서 "경작하다"는 동사는 히브리어 עָבַד 를, 그리고 "지킨다"는 동사는 히브리어 שָׁמַר 를 번역한 것인데, LXX의 번역 용례를 따른 영어성경은 히브리어 동사 뒤에 붙어 있는 여성 단수로 표시된 대명사를 "동산"(히브리어에서는 남성 단수로 쓰임)을 의미하는 הָאָדָם 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두 동사의 끝에 붙어 있는 여성 단수의 대명사를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의 흐름상 더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두 동사는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한다"(to worship and to obey)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cf.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107. 클라인도 עָבַד 라는 히브리어 동사에는 "섬긴다"(to serve)는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 2 절 하나님 나라의 실패와 회복에 대한 약속(창3장)

1. 인간의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실패

창세기 3장의 진반부를 보면 뱀을 앞세우며 에덴동산에 나타난 사탄의 등장으로 인간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역사적 소명을 완수할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 기회를 통해 아담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건설 프로젝트를 성취해 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유일한 왕이 세워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에 도전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프로젝트를 망치고 말았다.

가. 거짓 왕 사탄의 유혹

사탄이 인간을 유혹함으로 이루려 했던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사탄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인간을 먼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서약을 파기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예외적 명령,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건드렸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3:1하). 유혹자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절대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무너뜨림으로 그분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사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부당한 것이고, 피조물인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 없이 스스로 독립적인 판단을 할 권리가 있다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와 독립을 선언하도록 부추겼다. 이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없애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유일의 주권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본질이다.⁷⁹⁾

나. 인간 왕의 반란

속국의 왕은 누가 종주국의 왕에 반역하는 말을 하면 이것을 반드시 종주 왕에게 보고하고 진행 중인 반란에 대해 즉각 군사적인 행동을 취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에덴에 살던 인간도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란을 부추기는 사탄의 교활한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에 즉각 반란 대장인 사탄에게 맞서 대리통치자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그를 에덴에서 축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비난에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에 동조하고 말았다. 인간은 사탄의 말, 즉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3:4b-5)는 거짓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사탄이 악한 독재자 하나님의 종살이에서 해방하기 위해 왔고, 또한 인류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인간의 수준에서 신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고 믿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우주의 유일한 왕이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탄을 주로 섬기는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⁸⁰⁾

한편, 에덴의 부부가 죄를 범하자마자 그들의 양심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의 행동을 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 죄책감은 벌기받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의 형태로 나타났는데(창3:7상),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것(창3:8)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법적으로 위반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었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 진행된 범죄한 인간에 대한 심문 과정은 아담과 하와의 거짓 책임 회피와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창3:11-13)를 통해 남자와 여자의 완전한 타락 상태를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거부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거짓말의 아버지인 사탄의 형상을 취하게 되었다.⁸¹⁾ 인간의 인약적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이상이 첫 번째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79) Waltke, *구약신학*, 308;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172-173.

80) Kaiser, *구약 성경 신학*, 107-108;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176.

81) Waltke, *구약 신학*, 307;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182-183.

2. 절망 속에 피어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소망

창세기 3장의 후반부에서는 재판장 하나님의 심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약을 저버린 인간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반역의 주동자인 사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내리면서도(창3:14) 반역에 동조한 인류에게는 죄에 대한 선고를 인도하지만(창3:16-19) 새로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신다(창3:15). 창세기 3장의 심판 장면에는 범죄한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함께 절망 속에 피어난 복된 소망이 함께 오비랩 되고 있다.

가. 우주의 왕 하나님의 심판

우주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탄의 멸망을 선포하고 반역한 인간 왕을 징계하기 위해서 에덴동산의 심판 자리에 도착하셨다(창3:8). 여기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그 날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된 구절은 “그 날의 영으로서”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람”(אֵף)이 창세기 1:2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영”으로 번역되고 있고, “그 날”(אֵף)은 선지자들이 다가온다고 예언한 큰 심판이 있는 “주의 날”을 연상케 하며, “낮”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님(פֶּאִיִּם) 얼굴 혹은 임재)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주의 제립(파루시아)의 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⁸²⁾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창세기 3:8은 우리에게 “후대의 주의 날들이 주조되는 원형 틀”을 제공하고, 마지막 날에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주의 제립(파루시아)의 날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⁸³⁾

하나님이 “그 날의 영으로” 임재할 때 누구도 하나님의 영에게서 도망해 피하거나 숨을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뱀에게 나타났다. 비록 사탄에 대해 즉각적인 최후의 심판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사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선포하셨다. 피조세계의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이 심판관적 권위를 가지고 별

82)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180.

83) Ibid.

땅의 저주를 선포했을 때(창3:14), 거짓의 왕 사탄은 어떠한 변명이나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뱀에게 저주의 선고를 내린 후 재판장 하나님은 일련의 심문 과정을 통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인약을 깨뜨리고 왕이신 하나님과 대리통치자 인간 사이에 설정되어 있던 하나님 나라의 근본 질서를 파괴한 죄가 확인된 인간 부부에게 선고를 내리신다. 인간에게 선고된 심판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이다.⁸⁴⁾ 첫째,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깨어짐이다. 이것은 인간이 에덴동산으로부터 추방된 태서 잘 나타난다(3:23). 기록하신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인간을 기록한 성소인 에덴에 머물게 할 수가 없었기에,⁸⁵⁾ 그들을 하나님의 임제가 머물고 있는 에덴동산에서 추방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제와 보호가 있는 에덴으로부터 축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의 깨어짐이다(창3:16). 남편을 향한 여자의 갈망(*תַּשׁוּקָה*, desire or longing)은 남편이 여자를 지배(*שָׁרָה*, rule over)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⁸⁶⁾ 그 결과 결혼제도를 통한 남자와 여자의 완전한 조화 관계가 상호 경쟁과 불신 그리고 갈등으로 인한 싸움으로 얼룩지게 되었다. 셋째, 인간과 자연과의 깨어짐이다(창3:17-19). 자연을 비롯한 피조물은 더 이상 인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된다. 인간의 왕 같은 위임을 비롯하며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을 조공으로 영경귀를 왕관으로 바친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창3:17). 여기서 저주라는 말이 땅을 향하여 사용되었지만, 땅의 저주라는 말은 그 결과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후로 이 세상의 역사 속에는 인간이 정복해야 할 땅이 도리어 인간을 정복하게 되는 역전 현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남자가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은 고통과 실망으로 얼룩진 힘들고 어려운 노동이 될 것이다(창3:18-19).⁸⁷⁾

84) Goldsworthy, *복음과 하나님 나라*, 66-67. cf.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20. 김세윤 교수는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가 삼중적인 소외,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85) Wenham, *Genesis 1-15*, 76. 그는 "기니시어"(히브리어 *גִּינִישִׁי*의 히트파엘 분사형)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성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제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레26:12; 신23:15; 삼하7:6-7), 창세기 저자는 에덴과 훗날 나타날 성소 사이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86) Kaiser, *구약성경신학*, 109; Wenham, *Genesis 1-15*, 81.

87) Wenham, *Genesis 1-15*, 81.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19).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은 위에 언급한 세 가지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생존을 위한 투쟁, 끝없는 분쟁과 다툼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⁸⁸⁾ 여기서 우리는 죄의 대가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인간이 범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인간은 그 생명의 영위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이자 하나님 나라의 근본 질서였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 자기의 지혜, 힘, 시간 등 자기 속에 내재해 있는 자원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인식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을 선언했는데,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⁸⁹⁾ 이것은 인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들(생명, 영원, 사랑, 힘 등)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무지의 처사이다.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속에 내재해 있는 극도로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되었고,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결핍과 좌절과 실패를 맛보며 갖가지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결국 대지로부터 뿌리 뽑혀 땅에서 분리된 나무가 제한된 양분으로 살다가 죽듯이, 인간은 자신 속에 있는 제한된 자원에 의해 얼마간 살다가 그 자원이 모두 고갈되면 썩어 없어지는 나무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⁹⁰⁾

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

88) Vos, *성경신학*, 56. 보스는 생명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라면, 죽음의 근본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즉 에덴동산에서의 추방되었음에 있음을 지적한다.

89)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15. cf. VanGemeren, *구원개시의 발전사 I*, 102. 성경의 언어에서 죄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행위인 “반역”을 내포한다. 에덴동산에서의 첫 날부터 하나님이 땅에 인간을 홀으실 때까지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항의 경향을 보여 왔다.

90)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16-20.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이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두려워하여 숨은 그들을 찾아 부르시는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었고(창3:9), 범죄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문과정에서 약속된 원시 복음(protoevangel, 즉 복음에 대한 첫 언급)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창3:15).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창세기 3:15은 창조와 타락 이후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윤곽을 그려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은 인류가 사단과 맺은 연합의 줄을 끊고 여자의 후손과 뱀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신다. 적대 관계는 “여자와 뱀 사이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그리고 그와 사탄 사이”에 놓여질 것이다.⁹¹⁾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후손인 사단의 백성으로 나뉘며 나아가 서로 간에는 적대감을 갖고 이 땅을 자기 소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임을 보여 준다. 둘째, 하나님과 사탄 간의 두 왕국의 충돌과 전쟁이 계속되는 인류 역사의 끝에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로 해석되는 여자의 씨(זרע, seed, offspring)가 나타나서 결정적으로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⁹²⁾ 인류역사 속에서 사탄은 이 땅 위에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를 무력화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숴서 사탄에게 치명적 상처와 함께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줄 것이다. 종말에 여자의 후손인 “그”(he)는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여는 대표로 뱀을 앞세운 사탄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사탄은 하늘에서 축출되어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있는 두 번째 죽음의 호수로 던져질 것이다(시110:6;계12:9;20장 참조).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공포하신 주권적 구속 은혜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복된 소망이 먼저 실패한 인간에게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주의 깊게 살핀다. 여자의 후손을 통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 아담은 자기 곁에 있던 여자를 하와(חַוָּה, life or living)라고 명명함으로써 하

91) Robertson,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102-106. 로버트슨은 뱀(사탄)과 첫 번째 적대관계에 있는 여자를 일반적인 여성(womanhood)으로, 두 번째 적대 관계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 번째 적대 관계에 있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다.

92) Waltke, *구약 신학*, 311;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198.

나님이 주신 약속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한다(창3:20).⁹³⁾ 이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체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지어줌으로써 당신의 구속 계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신다. 가죽 옷을 지어 입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죄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부끄러운 때를 가리고 그를 은둔 속으로부터 끌어내어 용서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초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증시켜 주는 표지”였다.⁹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의 빛은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인류의 구원이 생명의 희생과 희생적 대속을 통해 획득된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교훈해 주고 있다. 성경 본문은 이 점을 강조하지도 않고 동물 희생을 특정하게 언급하지도 않지만,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의 옷의 재료로 가죽이 언급될 때 창세기의 1차적 독자로서 제의 중심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가죽의 획득을 위해 반드시 발생했을 희생 죽음이 떠올랐을 것이다.⁹⁵⁾ 이스라엘 공동체 뿐 아니라 타락 후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록한 나라를 수여하기 위한 언약을 맺으시려면 반드시 희생적 대속이 필요했다. 따라서 구속 언약의 최종판인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된다(마26:28; 히10:29; 13:20). 결국 창세기 3장에서 보이는 상징적 희생은 새 언약 건설에 필수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할을 유형(prototype)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⁹⁶⁾

제 3 절 두 왕국(하나님과 사탄)의 충돌과 결말(창4-11장)

장구한 세월에 걸친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창세기 4장에서 11장에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으로 구분되는 두 계열의 초기 전개과정이 그려지고 있다. 사탄은 아담의 통치 때 사용했던 속임수를 타락 이후의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사용했는데, 그 때마다 백의 후손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짓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부각시켰다. 반면에 정건한

93) Schmittjer, *토라 스토리*, 97;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205.

94)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205.

95) Ibid., 208.

96) Ibid., 209.

여자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한편 타락 후의 인류 역사가 진행되면서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들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사탄 나라의 백성 사이의 긴장과 갈등 관계가 여러 형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뱀의 후손들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과 심판으로 인해 사탄의 나라는 비극적인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1. 뱀의 후손들

가. 홍수 이전

뱀의 후손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폭력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예언된 분쟁이 표출된 것이고(창4:8), 위선적 예배 행위를 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증오의 마음을 쏟아 낸 것(창4:9)은 가인이 다름 아닌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뱀의 후손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또한 가인은 자신이 정착하게 된 땅의 이름을 자신의 형상인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지음으로써 아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기억이 그 땅에 지속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창4:17). 가인이 자신이 사는 곳을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고 지칭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자율성과 자급자족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사랑하는 인간의 자기 숭배 욕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였다.⁹⁷⁾

가인의 족보의 뒤를 이은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결혼제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고(창4:19), 자신을 상하게(עצב wound) 한 소년(נַעַר youth, child)을 죽음을 통해(הרג to kill) 복수함으로써(창4:23) 정의 실현을 위해

97)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241.

세워진 제도를 개인적 복수를 위한 폭정으로 바꾸어 미렸다(출21:23-25의 동태복수법 참조).⁹⁸⁾ 복수 행위를 통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우월함을 주장한 라멕의 교만은 하늘 위에 우뚝 솟게 되었고 결국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은 자로 주장하게 만들었다(창4:24).⁹⁹⁾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브네 하엘로힘(בני־האלהים)에 대한 이야기는 4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인 왕조의 그림을 완성시킨다. 한글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브네 하엘로힘은 전통적으로 가인 계열의 후손들과 결혼한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히브리어 정관사가 원칙적으로는 고유명사에 붙지 않고, 문맥 상 사람의 딸들(창6:1,2)이 여자 일반을 지칭하고 있기에 브네 하엘로힘도 남자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종교적 혼합을 통해 생산된 후손들이 네피림(נפילים giants, 창6:4)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브네 하엘로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신들의 아들들” 즉 물리적 힘을 특징으로 하는 네피림(4절)의 조상이면서 신격화된 “인간 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¹⁰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창세기 6장의 “신들의 아들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방법은 창세기 4장에서 지적된 라멕의 통치 방법, 즉 힘의 논리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의 방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왕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고”(창6:2), 육체적 힘과 군사적 힘을 앞세워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으며(창6:4), 스스로를 신격화하면서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며 왕이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모욕했다(창6:5).¹⁰¹⁾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뱀의 후손들의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반역은 이 땅의 군주들이 스스로를 “신들”이라는 명칭을 취한 데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나. 홍수 이후

홍수 심판 후에 받은 자신의 행위, 즉 술취한 아버지의 부끄러운 나체를 악하게

98) Wenham, *Genesis 1-15*, 114. 라멕의 노래 속에는 “내가, 나의, 나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 라멕은 자신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성과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99)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242.

100) Wenham, *Genesis 1-15*, 142-143;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244-245.

101) Waltke, *구약 신학*, 334.

조롱한 것(창9:20-23)을 통해 스스로 백의 자손임을 증명하였다. 인간의 타락 사건에서 백이 아담과 하와를 부끄러운 나체의 상태로 이끌었던 것처럼,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나체를 가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드러냄으로 스스로가 사탄을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¹⁰²⁾ 함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노아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한 저주(창9:25)는 역사적으로 일어날 후대의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자의 후손과 백의 후손 사이에 설정된 원수관계가 가나안과 그 형제들과의 대립과 훗날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충돌관계를 통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특히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표현은 백의 자녀들인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이 훗날 하나님 나라로부터 영원히 축출되어 하나님의 축복에서 궁극적으로 제외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¹⁰³⁾ 창세기 10장 6-20절에 있는 함의 아들들의 족보에 열거된 가나안 민족들은 함과 가나안에 대한 노아의 저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민족의 이름들(15-19)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민족들의 목록 속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창15:19-21; 출3:8,17; 13:5; 23:23; 신7:1; 20:17; 수3:10; 24:11).

창세기 10장을 보면 육체적인 힘과 정치적 물리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소위 “신의 아들들”의 영어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통해 다시 부활했다(8). 니므롯은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 왕국의 후예들처럼 깡보르(גִּבּוֹר strong, mighty)로 불리고 있는데, 그의 영웅적인 힘은 사냥술을 통해서 증명된다(창10:9). 성경 저자는 니므롯을 바벨탑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으므로”(창10:10)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¹⁰⁴⁾

2. 여자의 후손들

102)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332-333. 창세기 기자는 창3:14-15과 창9:25-27에서 사탄과 함의 악한 행위가 나체를 드러내는 일과 관계있음을 보여주면서 두 기사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

103) Ibid., 334.

104)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오경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77.

가. 셋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은 셋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된다(창4:25). 하와는 셋을 가인이 살해한 아벨을 대신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합법적 후손으로 간주하였다(창4:26). 우리는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표현을 통해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표현 속에는 셋의 후손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창12:8;13:4;21:33;26:25 참조).¹⁰⁵⁾ 하나님은 가인과 라벱으로 이어지는 뱀의 후손들이 득세하는 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 분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셋의 후손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존해 가셨다.¹⁰⁶⁾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셋을 통한 계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건한 여자의 후손들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에녹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녹의 삶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 속에 나타나 있다(창5:22). 여기서 “동행하다”(גָּנַח)는 동사가 전치사 에트(עִתּ)와 같이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동사는 주어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경건한 삶”을 표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다른 전치사와 함께 쓰인 구문에서는 자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 관계를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의미로 사용된다(창17:1;24:40;48:15;레26:12;신23:14).¹⁰⁷⁾ 유다서에 따르면 에녹은 스스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 즉 뱀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다(15). 또한 에녹은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중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유1:14). 그 날이 에녹의 경고를 무시한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어둠과 죽음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그 분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늘로 직접 올라간 에녹의 개인적 생애를 통해 분명하게 증거되었는데, 에녹의 승천(창5:24)은 왕이

105) Waltke, *구약 신학*, 319;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255; Wenham, *Genesis 1-15*, 116. 이 표현은 족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06)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253-254.

107) Ibid., 267.

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궁극적 축복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애인적 표지가 되었다.¹⁰⁸⁾

나. 노아의 후손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는 세계의 궁극적 소유권을 둘러싼 두 라이벌 사이의 적대감이 계속되어 왔는데,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 이 땅의 기업을 놓고 벌이는 투쟁은 그 최고점에 이른다. 노아 시대의 뱀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으로 부르면서(신들의 아들들) 힘의 논리를 앞세워 부자비하게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탄 후손들의 증오도 점점 더 증대되어가고 있었다(창6:11). 이로 인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인 노아의 가족은 이 땅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여덟 명의 가족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심으로 그 남은 자들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다(창6:8).¹⁰⁹⁾ 애늬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았다(창6:9), 베드로후서에 따르면 노아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자기 시대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과는 달리 반역적이고 패역한 세상에서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베후2:5).¹¹⁰⁾ 결국 노아는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창7:1)하신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 모습에 대한 소중한 모델이 되었다.

창세기 9:18-19은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온 세계가 유래했음을 말하고 있는데, 노아의 찬송 형식의 축복을 통해 셋 후손은 셋 후손들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다(창 9:26).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에벨(창10:21)과 벨렉의 계보(창11:16 이하)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메시아로 연결되는 계보로 선택하셨다.¹¹¹⁾ 노아의 애인적 축복은 셋, 에벨, 벨렉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테라에 이르는 시기에 성취되기

108)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270.

109) Ibid., 280.

110) 베후전3:20; 히11:7도 참고하라.

111) Ibid., 354-357.

시작했는데, 셈에 대한 노아의 축복이 결정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에벳을 통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적 소명을 주실 때였다(창12:2-3).

3. 셈의 후손들의 도진과 비극적인 결말

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적대감은 세계의 궁극적 소유권을 둘러싼 두 라이벌 사이의 적대감이었다(마4:8; 뱀전1:4; 뱀후3:13; 계11:15; 12:10). 그런데 노아 시대에 이르러 이 땅의 기업을 놓고 벌이는 투쟁은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이 땅에 기껏 왕에 대한 우상숭배가 만연하면서 한때 셋 후손 사이에 번성했던 언약 공동체가 거의 멸종하게 되었다. 여자의 후손인 노아 가족의 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셈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연기 될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 홍수 심판의 형태로 개입하셨다(창6:9-8:22).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셈의 후손들을 멸망시키고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의 공동체를 구축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은 노아와 그 가족들인 여덟 명의 사람들과 동일시되었다(뱀전3:20).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8명의 남은 자들은 인류 구원의 희망이 미래까지, 마지막 메시아적 성취의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대표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증가되는 박해와 배교 행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통해 유지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영속성을 반영하고 있다.¹¹²⁾

한편 바벨탑 이야기(창11:1-9)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셈의 후손들의 집단적인 반란과 그 최후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그들은 교만과 불신앙 속에서 온 땅에 흩어져 문화명령을 성취해야 하는 사명을 망각한 채(창9:1 참조),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류를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연합의 구심점을 만들려고 했다(창11:4). 시날에 모인 사람들이 세우려고 했던 탑은 고대의 계단 달린 피라미드 구조물인 지구라트로 이해할 수 있는데,¹¹³⁾ 바벨론의 기원과 지구라트에 대한 메소포타미아의 전통은 창세기 11장 사건의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 즉 고대인들에게 지구라트는 종종 하늘에 그 끝이 닿는 것으로 묘사되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중심축이자 신들이 모이는 성산으로 이해되어져 왔는데, 시날 평지에 모여든 인간들은 스스로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라고 우상화하면서 우주적 중심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광범위한 연

112) Wenham, *Genesis 1-15*, 196;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282.

113)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343.

합의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다.¹¹⁴⁾ 그러나 사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에 까지 자신들의 “이름”을 높여서 우주의 중심인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뱀의 후손들의 오만은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을 통해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창세기 기자는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여든 반역자들의 “자, 우리가...하늘까지 건설하자”(4)는 무모한 도전은 “자, 우리가 내려가... 혼잡케 하자”(7)는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을 통해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음을 분명하게 밝힌다.¹¹⁵⁾ 결국 바벨탑 이야기는 뱀의 후손들이 민족적 연합을 통해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던 직그리스도의 운동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 개입과 심판에 의한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 주고 있다.

제 4 절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한 보충해설과 질문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의 1차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들이 겪는 혼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줄 필요가 있다. 첫째, 천지창조 이야기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내용물과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읽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천지창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주 간과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이 소개하는 천지창조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적 왕이셨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한낱 흙으로 빚으신 인간에게 통치의 권한을 맡겨주셨다. 1장에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2장에서 에덴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 위임을 받는다.

114) Vos, *성경신학*, 76.

115) Wenham, *Genesis 1-15*, 241. 그는 “우리가 내려가서”에서 복수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천상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창18:2; 출19:20 참조)이고, “혼잡케 하다”(לַבְּנוֹת to mix up)라는 동사는 “바벨”(בָּבֶל Babel, Babylon)이라는 단어와의 언어유희로 시날에 모여든 사람들이 바리던 이름 대신에 “혼잡, 섞임”이라는 초라한 이름을 얻게 되었음을 냉소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다.

둘째,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이유를 인약적 책임을 지미린 아담에게서 찾지 않고, 오히려 에덴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세워놓아 밤낮으로 시험거리를 제공한 하나님께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운영원리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지는 해프닝이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운영원리, 즉 아담은 대리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갖고 있지만, 오직 그 권세는 통치권을 맡겨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사되어야 함을 일깨워 주는 일종의 표지(sign)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타락과 회복에 대한 약속은 쉽게 이해하는데 반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사건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는 최초의 원시 복음(창3:15)을 중심으로 사탄 나라를 대변하는 뱀의 후손들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여자의 후손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심판으로 두 세력 간 충돌의 최종적인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반역 세력들은 라멕의 세 아들과 노아시대의 네피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한다.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여자의 후손들은 아벨처럼 순교당하거나 소수의 무리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항상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던 노아시대의 사람들과 진 지구적 일치와 단결을 통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함 속에서 시날 평지에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정의로운 심판, 즉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1. 이해를 위한 질문들

가. 창세기1,2장

1.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입니까?

2.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상의 통치 방식과 연관해서 말해봅시다.

3.하나님이 아담을 에덴동산에 두시면서 어떤 사명과 임무를 주셨습니까?(창2:15)

4.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와 관련해서 신약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5.에덴동산에 세워져 있던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관련해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6.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 아담에게 주신 명령들은 무엇입니까?

나. 창세기3장

1.뱀을 앞세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는 무엇입니까?

2.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해 왔습니까?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반란을 부추기는 뱀의 교활한 도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창3:19)

4.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무엇입니까?(창3:24) 죄에 대한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창3:15)

5.에덴동산에서 계획된 하나님 나라 건설 프로젝트가 아담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좌초될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창세기4-11장

1.이 단락에 등장하는 사탄의 나라를 대변하는 뱀의 후손들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어가는 여자의 후손들은 누구입니까?

2.뱀의 후손들인 가인, 라멕, 네피림, 함, 니므롯, 시날평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서 엿볼 수 있는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여자의 후손들인 아벨, 셋, 에노스, 노아, 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4. 노아시대에 변성한 사람들이 항상 악한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죄악을 일삼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또한 시날 평지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죄 된 욕망을 불태우며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5.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사탄 나라의 백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번창하는 뱀의 후손들에 비하면 약한 소수자에 불과한 여자의 후손들이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적용을 위한 질문들(창1-11장)

1.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생명, 시간, 건강, 가족, 자녀를 비롯해 당신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2.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당신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배, 안식일 준수, 결혼, 문화명령의 관점에서 말해봅시다.

3.신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 분열, 갈등, 다툼, 전쟁, 공포, 절망, 죽음의 문제가 가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허구적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충분한 정도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진폭적으로 후원하거나 공공연히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4.타락의 악영향이 인간세계뿐 아니라 자연계를 포함한 피조세계 전반에 미쳤다면, 구원과 회복의 대상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할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꾸 개인의 죄사함과 영혼 구원으로만 제한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사람뿐 아니라 정치, 제도, 문화, 자연과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5.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이 개인의 실존적 회심을 넘어서 사회-생태적 회심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창9:9-10) 우리가 생태적 회심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6.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신하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안정된 구조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과 죄악이 이 땅에 넘쳐나게 되면 언제든지 노아홍수급 심판이 벌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였습니다. 신한 창조 질서의 존속이 그 질서를 향유하는 인간의 인약적 책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 5 장

하나님 나라의 2차 프로젝트(창12장-사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뱀의 후손들의 주도하에 긴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갔고, 결국 하나님은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 범죄한 인류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다. 그러나 두 번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뱀의 후손들은 여전히 악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더 악한 길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 심지어는 여자의 후손들인 셋과 노아의 후손들조차 뱀의 후손인 가인계열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 결과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는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부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고, 그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세상 나라에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을 통해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2차 프로젝트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었고(창12-50장), 민족적 규모로 성장한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광야생활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을 받았으며(출애굽기-신명기), 여호수아의 영도 하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완성되었다(여호수아). 그러나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새롭게 시도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프로젝트가 어떻게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면서 좌초하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 1 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창12-50장)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아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려 했던 뱀의 후손들을 온 지면에

홀으신 후, 여자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셨다.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준비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1.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그 이전 시대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련의 약속들, 즉 창3:15과 9:25-27의 하나님 나라의 구속과 갱신에 대한 예언들을 유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여자의 후손과 셈의 후손에게 주신 언약 회복에 대한 약속, 사탄 나라와의 전쟁, 저주 받은 민족(뱀의 후손과 가나안), 메시아의 결정적 승리(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언약 약속의 우주적 확장(야벳의 후손)에 대한 약속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⁶⁾

가. 언약의 내용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옮기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창12:2,3), 이 약속은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창13:14-17;15:1-21;17:1-14). 아브라함에게 반복된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어 ‘나라’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창12:2;13:14-16).¹¹⁷⁾ 둘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훗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창13:17;15:18-21;17:8).¹¹⁸⁾ 셋째, 아브라함과 그의 후

116) Kline, *하나님 나라의 서막*, 403-404.

117) Walke, *구약 신학*, 369.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그 수가 땅의 먼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은 창세기에서 반복되고 있다(창26:4;28:3).

118) Ibid., 371.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창24:7;26:3-4;28:13-14;35:12;48:4;49:1;50:24).

손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들로 구성되는 ‘열방’으로까지 확장될 것이다(17:4,16;18:18).¹¹⁹⁾

나. 언약의 목적

내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 언약은 그 이전 시대에 이미 계시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건설 계획,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대리 통치자 아담을 통해 에덴동산에 건설하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창2장)와 아담의 타락 이후 새롭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창3:15;9:25-27)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비록 하나님 나라의 건설 계획이 역사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부사항들이 첨가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비전은 변함없이 지속된다.¹²⁰⁾ 그렇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목표하시는 것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곳에 나라를 세워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창17:7,8)과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창18:18)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대복에서 확인할 수 있다.¹²¹⁾

다. 언약의 특징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창3:15의 타락한 인류가 두 그룹으로 나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암시되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하여 홍수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에서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

119) Robertson,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 158.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문자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두 단계의 성취로 나뉘는데(롬4:11-12,16-17), 두 번째 영적 단계의 성취는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 Kline, *하나님 나라의 시막*, 403.

121) Kaiser, *구약 성경 신학*, 129-130.

택과 약속에 의해서 출발하는 아브라함 언약이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족장 역사를 계승할 이삭과 야곱을 일방적으로 지명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른 결과이다(롬9:10-12).¹²²⁾

2.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12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네 명의 족장들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후손이 어떻게 아브라함 한 가정에서 직계만 70명에 이르는 집안으로, 그리고 야곱의 일가가 에굽으로 내려가 머무는 동안 20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민족적 차원으로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주권적 은혜

창세기의 족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주권적 은혜를 베풀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셨고(수24:2; 행7:2,3),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에서 대신에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약속의 후손으로 선택해 주셨다.¹²³⁾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들 모두가 불임이었지만,¹²⁴⁾ 하나님은 일방적 은혜를 베푸셔서

122)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BC* (Dallas: Word, 1994) 20. 고든 웬햄은 언약을 시행하는 것은 완전히 신적 주도권의 결과였지만(17:1-8, 15-22) 언약을 확증하는 것은 인간의 반응을 포함하고, 이 반응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17:1)고 요약하고 있으며,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도 확인된다고 말한다.

123) Vos, *성경신학*, 94.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베푸신 주권적 은혜는 '선택'으로 구체화되었다.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의 계시는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밖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선택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국한되는 협소화의 방향이 아니라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우주적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124)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21:3), 이삭의 아내 리브가(25:21), 야곱의 아내 라헬(30:22)은 모두 불임이었다.

그들의 테를 여시고 언약의 후손을 허락해 주셨다. 특히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나 되어 자연적으로는 자녀 생산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절망적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기적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었다(창 18:4).

나. 족장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찾아온 위기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 족장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 차례의 위기가 찾아왔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약속의 땅을 벗어나 성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갔다(12:1). 그는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다(12:13). 이로 인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12:15).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20:2).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삭은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이 되풀이 했다(26:7).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아내였던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다(16:2).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25:23)이라는 분명한 유성을 들었음에도 인간적인 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선택하신 차남 야곱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했던 장남 에서를 끝까지 축복하려는 고집과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다(27:1).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 가로채기, 아버지 앞에서 형인 것처럼 위장하기(27:24), 품삯을 둘러싼 외삼촌 라반과의 피 말리는 머리싸움(31:41) 등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경쟁과 시기심, 인간적인 꾀와 속임수로 점철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았다.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

위의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족장들의 불신앙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었다. 족장들의 불신앙은 단순히 가정의 위기를 넘어서 하

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위기를 가져왔다. 만약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족장들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자칫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또 다시 좌초되거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야곱의 바로를 심판하시고(12:17), 그랄 왕 아비멜렉을 꾸짖으심으로(20:3)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을 약속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노력은 장자의 축복권을 사이에 두고 이삭의 집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장남이었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야곱은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이 많아 시력을 거의 잃어버린 아버지를 속여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고야 말았다(27:19). 결과적으로 이삭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다.¹²⁵⁾ 야곱의 모든 생애는 거짓과 속임수로 얼룩진 불신앙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28:12;31:42;32:30;35:1).¹²⁶⁾ 족장들의 연약함과 넘어짐 때문에 수도 없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꿈이 깨어질 위기에 처해 졌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은혜 배부심을 통해 모든 위기는 극복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민족적 규모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키우시기 위한 계획은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었다.

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됨

족장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길목마다 찾아오셔서 주권적 은혜를 배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분을 아는 체험적 지식의 깊이가 더해 갔다. 아브

125) Waltke, *구약신학*, 396-399.

126) Vos, *성경신학*, 115-117. 보스는 야곱의 비탄할 만한 특징이 오히려 장점으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신적 은혜가 인간적인 죄를 극복하고 인간적인 본성을 변화시키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라함은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절망적 상황에서 이삭을 얻었고, 이 사건은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17:1)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 지중해 일대의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통치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호와께 있음'을 알게 되었다(창14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주권'을 갖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18:21), 심판받은 도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18:18,19,32). 이삭은 자신에게 쌍둥이 자녀를 주시고(25:23), 한 해 농사를 지어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사건(26:12,13)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유명한 우물파기와 관련된 브엘세바 사건(26:20,21,22,24)을 통해서 주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였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가 두 군데 있다.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던 중 베엘에서 사닥다리 환상과 관련해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을 다시 듣게 되었다(28:10이하). 외삼촌 집에서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이십 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길에 압북 강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하사 받았다(32:22-32).

족장들은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족장들의 믿음도 더 커져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족장들은 종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걸맞는 믿음의 영웅들로 우뚝 서게 되었다(히11장).¹²⁷⁾

마. 요셉

요셉 이야기(창37-50장)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큰 민

127) Martens, *하나님의 계획*, 46-47.

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씨’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이삭을 종자 씨로 삼아, 야곱의 못자리에서 열 두 명의 아들을 통해 70명의 일가를 키워나가셨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완전수인 70명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서 에굽 땅으로 보내셨다.

야곱의 가족을 에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뒤로 하고 에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에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에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46:3).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대로 야곱의 일가를 하늘의 못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숫자적으로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셨다.¹²⁸⁾ 에굽은 야곱의 일가가 숫자적으로 번성하는데 필요한 천혜의 환경과 훌륭한 생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야곱의 일가는 에굽이 가져다주는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민족적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야곱의 가족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에굽의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주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에 휩싸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 야곱의 가족이 머물던 고센 땅은 비옥하였고 나일 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다. 에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기에, 목축업에 종사하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에굽 땅에 살면서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46:34). 에굽에 머물렀던 기간 동안 야곱의 일가는 하나님의 언약적 돌보심 속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국가적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다.¹²⁹⁾ 여기에는 야곱의 일가가 민족적 규모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요셉을 미리 에굽에 보내시고(창45:5,7), 총리가 된 요셉의 보호 아래 70명이라는 완전수의 하나님 나라의 씨가 에굽 땅에서 비밀리에 숨겨져 민족적 규모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섭리가 있었다.

128) Waltke, *구약신학*, 405, 408.

129) 한편 야곱의 가족이 에굽에 머물렀던 400여 년 동안의 기간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성지로 차지하게 될 때의 합법적인 명분, 즉 그 땅에 거주하고 살던 토착민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가득 차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시간이기도 했다(창15:16).

제 2 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출-신명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 머무는 기간 동안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출1:7).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은 외적으로는 민족적 규모로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소유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1.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가. 열 가지 재앙

하나님은 애굽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하여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민족적 규모로 성장하자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셨다(창46:3,4).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출5:1)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출5:2)고 외쳤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냐를 두고 두 세력, 즉 모세를 앞세운 하나님과 바로를 앞세운 사탄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하나하나씩 철저히 심판하셨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파라오), 나일 강, 태양을 신성시 했고, 모든 동물들에는 신들의 영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모든 세상 나라들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유일한 왕이라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출9:14,16,29).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계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억하는 에굽을 향해서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 한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만큼은 철저하게 보호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출8:22).¹³⁰⁾

그러나 에굽의 바로는 아홉 번씩 이어지는 제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하나님은 마지막 일 번째 제앙을 통해 에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노예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조리 죽이셨다(출11:5). 이 제앙은 그 자체가 국가의 재난과 붕괴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에굽의 바로는 그날 밤 바로 모세를 황급히 불러들여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출12:31)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했다.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 유월절과 출애굽

마지막 제앙은 에굽 사람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해 내리시는 최후의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에굽 왕 바로, 에굽의 신들, 일반 백성, 가축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에굽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의 칼을 휘두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유월절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택하여 그것을 잡아 죽여서 흘려진 피를 거주하는 집에 바르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에굽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며 심판의 칼을 휘두를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집, 즉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대로 넘어갔다(출12:13). 이스

130) Waltke, *구약신학*, 443-446; Martens, *하나님의 계획*, 58-60. 마틴은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출15:13)는 구절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출애굽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해세드의 결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 의식을 지켰기 때문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어나가는 살벌한 심판의 현장 한 가운데서도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출6:9. 참고. 신9:4-27).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월절 피를 신뢰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는 죽음을 믿음으로 시행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열 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킨 ‘유월절 사건’을 해마다 기념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명령하셨다(출12:14).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은 국가탄생일로 여겨지며 종교력의 첫 달이 되었다(출12:1).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20세 이상의 남자만 대략 60만 명 정도였는데(출12:37;38:26;민1:46;2:32;11:21;26:51), 여기에 여자들과 20세 미만의 아이들까지 더해진다면 출애굽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의 총 숫자는 거의 200만 명에 달한다.¹³¹⁾ 물론 이 숫자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나선 소수 부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출12:38;민11:4).

한편 하나님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해안 길을 통해 가나안에 이르는 잘 닦여진 도로로 인도하지 않으시고(출13:17), 광야를 거쳐 홍해의 해안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다(출13:18).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출14:2),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막대한 노동력을 잃게 된 애굽의 바로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 철 병거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진치고 있던 바로 턱밑까지 쫓아왔기 때문이다(출14:9). 이스라엘이 장막을 쳤던 장소는 넓은 수역으로 인해 앞으로 전진 할 수 없는 막다른 곳이었다.

131) 성경의 각기 다른 문맥에서 60만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가짜 주장하듯이 기록자의 잘못이 아님을 나타내는 뚜렷한 증거이다. 출애굽에 동참한 사람들의 기대한 숫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즉 ‘하늘의 못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 후손을 많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앞에 있던 구름기둥을 진 뒤로 옮기셔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벽을 설치해 주셨고(출14:19), 이스라엘 백성이 밧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의 거대한 물줄기를 갈라주셨으며(출14:22),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마치 마른 땅을 건듯이 그곳을 다 건넌 후에는 양쪽으로 갈라져 기둥처럼 멈춰 서 있던 물줄기를 다시 합치심으로 뒤쫓아 오던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셨다(출14:28).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미리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 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14:13,14)는 말씀이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2.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

하나님은 애굽에서 머물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이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민족적 규모로 커지자 진무후무한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아브라함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공식적인 관계를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출19장에서 24장까지에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시내산 언약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고대 중동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공식적인 관계(조약, 계약, 결혼 등)를 맺을 때 사용했던 형식과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시내산 언약은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었던가를 설명하는 역사적 서언(historical prologue)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입어서” 출애굽 시키신 분이시다.

(19:4). 다음으로 언약 당사자의 관계를 정의(definition of the partners)하는데(19:5-6), 시나이 언약의 두 당사자는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¹³²⁾ 여호와 하나님은 엄청난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요 언약의 파트너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유일한 대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언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존재(19:5)로, 제사장 나라(19:6)로, 기록한 백성(19:6)으로 부르시면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갖는 특별한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셨다.

체결되는 언약의 모든 주도권은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셔서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해 주셨다(19:7-8). 하지만 언약은 중재로만 이루어 질 수 없다. 반드시 언약 당사자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meeting of the partners)해야 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기 위해 미리 지정된 장소로 서로를 향해 나갔다. 물론 언약의 두 파트너가 나오는 모습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실 때는 불, 구름, 진동, 소리와 같은 자연현상이 동반되면서 비할 수 없을 정도의 장엄함과 엄숙함이 있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는데, 삼일 동안 준비하면서 옷도 빨고, 여인과의 성적인 관계도 자제해야 했다.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절차를 따라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다(19:9-25).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서 그들이 따라야 할 언약의 규범이 무엇인지를 십계명(20장)과 언약의 책(the book of the covenant, 21-2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나이 모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132) Waltke, *구약신학*, 480. 시나이 언약은 주전 3천 년 혹은 2천 년 초반 고대 근동의 가신 조약의 형태가 혼합된 양식인데, 종주권 조약의 요소들과의 평행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전체적 개요가 가장 잘 설명된다. 또한 Schnittjer, *토라 스토리*, 304-306을 보라.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약의 두 당사자이지만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없기에 많은 학자들은 시나이 언약을 종주권 조약(suzerainty treaty)의 형식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었다. 다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들이 무엇인지를 시내산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 교훈해 주시려고 했던 것이다.¹³³⁾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하면서 시내산 언약의 규범들을 성실히 지킬 것을 다짐한다(24:3,7). 이에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비준된 언약을 축하하는 예식(celebration of the ratified covenant)을 거행했다(24:3-11). 시내산 언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24:4), 이스라엘 상징하는 열 두 개의 돌기둥(24:4), 생명을 담보로 하는 서약을 상징하는 피(24:6,8)가 동원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 비준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워했다(24:11).

3.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율법, 성막과 제사, 광야에서의 고난이라는 방편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다.

가.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20:1), 언약서(24:7),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렀던 40일 기간 동안 말씀해 주신 길고도 자세한 명령들이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분류방법대로 하자면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의 분류방법대로 하자면 절대적(absolute) 혹은 필연적(apodictic) 율법과 판례적 혹은 결의적(casuistic)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 절대적 율법은 옳고 그른 것의 절대적

133) Vos, *성경신학*, 145-148; Kaiser, *구약 성경 신학*, 152-157; Robertson,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174-203.

인 원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처럼 “너는 하라” “너는 하지 말라”의 형식, 일반화된 언명 “누구든지” 저주공식 “저주를 받으리라”는 형식, 혹은 사형의 확정 “그는 반드시 죽을지니라”의 형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에 결의적 율법은 “만약 (if)... 그러면(then)” 혹은 “할 때(when)... 그러면(then)”의 형식을 취하면서, 절대적 율법의 삶에서의 실제적 적용방법을 돕는 역할을 감당한다.¹³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주신 율법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고(창2:16), 그 이후로도 중요한 순간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분명한 뜻을 알려 주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율법의 내용들은 이전에 가끔씩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신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시내산 계시의 전승이 녹아있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명분화된 문서의 형태로 개인, 가정, 공동체, 사회, 국가, 제의, 전쟁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 모세오경 속에 나오는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거울(mirror)이었다.¹³⁵⁾

그렇기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교과서(textbook)의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자세한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집에 있을 때, 일을 할 때, 잠을 잘 때, 쉴 때, 전쟁에서 싸울 때, 혹은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에 걸맞는 삶의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다. 또한 이스라엘은 율법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아야 했고, 우상을 멀리하면서 제의법의 가르침을 따라 오직 이호와 하나님만을 경외

134) Schnitger, *토라 스토리*, 300; VanGemeren, *구약계시의 발전사 I*, 194.

135) Waltke, *구약신학*, 509.

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잡혼금지(출34:16),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레11:2,47), 문신금지(레19:26-28) 등의 계명을 지키므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스라엘은 세상과는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출19:6; 신4:6).¹³⁶⁾

나. 성막과 제사

증기막 혹은 회막이라고 불리는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거나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서로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는 성막에서 만남과 교제를 이어갔다.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공간은 언약의 두 당사자를 상징한다.¹³⁷⁾ 지성소는 언약의 한 당사자인 하나님을 위한 공간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가 놓여 있다. 성소는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공간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떡상, 등대, 분향단이 놓여 있다. 그러므로 성막은 시내산 언약의 두 당사자들인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과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¹³⁸⁾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때나 아무런 준비 없이 성막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죄를 깨끗하게 씻는 제사의식을 치러야 했다.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이 아니라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했다. 제물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소(레1:3-5), 양 혹은 염소(레1:10), 새(레1:14) 등을 드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136) Waltke, *구약신학*, 477; Schnitjjer, *토라 스토리*, 296.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떠올리게 한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천하 열방들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더불어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 주고 있다.

137) 송제근,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 165.

138) Martens, *하나님의 계획*, 133-135; Vos, *성경신학*, 169-170.

‘흠 없는(tamim) 것’이어야 했다(레22:20).¹³⁹⁾ 흠 없는 제물이 요구되었던 것은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한 동물 대리자(animal-substitute)가 대신하기 때문인데, 이는 동물 그 자체가 선하거나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물의 완전성을 통하여 인간의 죽음을 대신한다는 상징을 보여준다.¹⁴⁰⁾ 실제로 제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는 제물을 드릴 때 그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이다(레1:4;3:2,8,4:4,15,24,29,33). 여기서 ‘안수의식’은 예배자 자신과 제물을 상징적으로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행위로, 안수를 통해 제물은 예배자의 대체자(substitute)가 되고, 예배자의 모든 죄가 제물인 동물에게로 전가(transfer)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제물로 드려진 모든 동물은 반드시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했다. 동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죽인 피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속죄의 기능이 있다. 피 흘림의 목적은 분명하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17:11). 피는 속죄의 역할을 한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를 위협한다. 기록하신 하나님은 부정함 가운데 거하시지 못한다. 또한 죄는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언약 백성들 사이의 관계까지 파괴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 속죄 제사를 통해 모든 죄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제거되어야지만 기록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며, 발전될 수 있었다.

왕이신 하나님의 기록과 자비,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의 필요성, 그리고 징결과 속죄의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속죄일의 제사이다(레16장).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염소 두 마리를 취해 제비를 뽑는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염소이고, 다른 하나는 산 채로 광야로 보내질 ‘아사셀’ 염소이다. 먼저 대제사장은 속죄제로 선택된 염소를 잡아 죽이고 그 피를 성막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언약궤 위에 위치한 속죄소에 뿌렸다

139) 하나님은 제물로 흠 없는 수송아지(레4:3), 흠 없는 숫염소(레4:23), 흠 없는 암염소(레4:28), 흠 없는 어린 양(레4:32)을 요구하셨다.

140) Vos, *성경신학*, 181.

(레16:15). 그러면 하나님은 속죄소의 뿌려진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값으로 받아주셨다. 다음으로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하여 예비 뽑힌 염소를 가져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한다(레16:21).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다. 안수의식이 끝나면 아사셀 염소는 미리 정한 사람을 통해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는 광야의 끝으로 보내진다.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광야의 단절된 곳으로 가서 자신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속죄일의 의식을 통해 지은 모든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된다.¹⁴¹⁾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면, 제사제도를 통해서도 그들이 범죄함으로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 때 다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셨다.

다. 계속된 불순종과 반복된 훈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사건을 경험하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공식적인 출범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기록한 백성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준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고(출15:24;17:2), 먹을 양식과 고기가 없고(출16:2,3), 편안하게 쉴 곳이 없다(민11:1)며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모세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들이었던 미리암과 아론(민12:1),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던 고라의 부리(민16:1,2), 이스라엘과 함께 쉬어 살던 다른 부족들(민11:4), 일반 백성(민14:1;16:23-35,41-50), 심지어는 모세(민20:17)를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흘러나왔다.

141) Schmittjer, *토라 스토리*, 396; Vos, *성경신학*, 181.

가테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열 두 정탐꾼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의 다양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더 다듬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영토인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열 두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며 정탐하게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정탐꾼들의 보고서는 크게 양분되었다. 자신들이 보고 온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민13:27),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서로 엇갈렸다. 열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있는 성들은 다 크고 견고할 뿐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키가 크고 힘이 세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민13:28,29,32,33).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곳의 성들과 사람들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민13:30;14:6-9).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믿음의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열 명의 의견을 채택한 후,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울며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 놓았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이에 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민14:2,3,4).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많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사십 여 년 동안의 혹독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민14:33,34).¹⁴²⁾

142) Schmittjer, *토라 스토리*, 481,484.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람을 삼키는 땅'으로 폄하하며 심하게 과장된 보고를 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 근거한 것이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평가를 인기 위해서 나쁜 보고를 했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과장된 보고를 믿어버렸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는 데 걸린 40일의 각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말씀들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범한 죄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징계의 채찍을 드시면서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늘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불 뱀을 보내 그들을 심판하셨으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뱀 백을 만들어 장대에 걸게 하신 후, 그 뱀을 보는 모든 자는 낮게 되는 기적을 베푸셨다(민21:8,9).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는 ‘풍성한 물’을, 먹을 양식과 고기가 없다고 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다(출16:12,35). 이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민14:14;신1:33).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외부와의 전쟁보다 내부와의 싸움, 즉 자신과의 싸움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불신앙, 불순종, 언약함 때문에 광야에서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졌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위한 언약적인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은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부딪친 갖가지 어려운 현실들과 다양한 고난의 상황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뉘어 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의와 절망에 빠져 낙심해 있을 때는 위로해 주시고, 실패하여 넘어져 있는 때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을 때는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다. 이것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 하였고, 언약의 백성에게 끝없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셨다.¹⁴³⁾

제 3 절 하나님 나라의 영토 찾기(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도전과 실패(사사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 이 백 만 명을 헤아리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였을 때에 자기 백성을 ‘야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출애굽

게 만드셨다. 그들을 ‘삼킨’ 땅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였다.
143) Martens, *하나님의 계획*, 108-109.

을 통해 첫 걸음을 떼었다. 하지만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 죄를 지었을 때의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준 ‘제사제도’,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제거하기 위한 ‘광야의 고난들’이라는 훌륭한 방편들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서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서 실현하려고 하셨다. 하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또 한 번 좌절되고 만다.

1. 하나님 나라의 영토 만들기

가. 전쟁의 성격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창13:17;15:18-21;17:8), 그 약속을 성취할 때가 왔을 때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기록한 전쟁’을 시작하셨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편애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거의 인종 청소에 방불한 대량 학살의 형태로 가나안 족속들을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땅의 거주민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땅의 거주민들이 갖은 죄악으로 땅을 더럽혀서 더 이상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자격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을 추방하고 쫓아내신 후 새로운 이주민들이 그곳을 차지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레25:8-11). 가나안의 원주민인 일곱 부족들도 한때는 이주민들이었는데 먼저 그 땅에 살고 있던 원(元) 원주민(原住民)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며 살고 있었다(신2:10-23). 아모리 족속은 본래 아

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이었는데, 주전 20세기경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 상류지역에서 발흥한 수메르 문명을 몰락시키고 메소포타미아의 새 주인이 되었다. 그 때 농경민이었던 수메르 사람들이 새 주인을 '서쪽에서 온 이주민'이라는 의미를 담아 '아모리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주민들이 다시 메소포타미아에서 남하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다.¹⁴⁴⁾

그러므로 가나안 원주민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행위였지 아무런 원칙도 없이 행해진 무자비한 인종 말살 행위가 아니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많이 쌓으면서 가나안 땅을 누릴 자격을 조금씩 상실해 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을 상실할 만큼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할 때까지 약 400여 년을 기다리신 후에야(창15:16)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의 새 주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는 일에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공의의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동일한 이유로 그 땅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 그들이 가나안 일곱 부족의 발자취를 뒤따른다면 그들 또한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반복해서 경고하셨다(수23:14;24:19-20).¹⁴⁵⁾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과 점령은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기입(inheritance)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성취였다(창13:14,15;15:7). 둘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은 그 땅 원주민들의 영적, 도덕적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다.¹⁴⁶⁾

나. 전쟁의 준비, 과정, 결과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고대사회에서 빈번했던 영토 확장이나 민족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이 아니었다. 가나안 전쟁은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144) Kaiser, *구약 성경 신학*, 172; Waltke, *구약신학*, 626.

145) Waltke, *구약신학*, 633.

146) Ibid., 635.

부패하고 타락한 그 땅의 원 거류자들을 심판하고 새 거류자인 이스라엘로 교체하기 위해 치른 ‘기록한 전쟁’이었다.¹⁴⁷⁾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하는 전쟁의 지휘관이 누구인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생하게 교훈해 주셨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온 땅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 서 나갔고, 열 두 지파를 대표하는 중간 지도자들이 그 뒤를 따랐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랐다(수3:2-4).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 흐르던 물줄기가 아예 끊어져 양쪽으로 물기둥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요단 강물 한 가운데를 건너갔다(수3:14-17).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친히 가르셨듯이, 하나님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셔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실 것임을 미리 보여 주셨다.

하지만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과 거룩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신형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쇄신의 일환으로 ‘할레와 유월절 의식 시행’을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수5:2,10). 실제로 이스라엘은 중화기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거룩한 제사장들을 앞세워 가나안 땅의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를 향하여 진군했을 때 그 성은 의외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수6:8-21). 하지만 소수의 병력으로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었던 아이 성 전투에서는 뜻밖의 패배를 당했는데,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거룩’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수7:1).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패의 결정적인 관건은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통한 ‘성결과 거룩의 유지’ 여부라는 것을 배웠다.¹⁴⁸⁾

147) 성경의 기사(민21:1-3; 수2:10; 6:17; 8:24-29)에 의하면 “가나안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헤렘(Holy war)의 원칙은 오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성읍들에만 적용되고 있다.

148) Martens, *하나님의 계획*, 154-157.

한편, 하나님의 기룩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주로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 싸우며 저항했지만, 이들의 저항은 오래 가지 못해 완전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수9:1;10:1;11:1-3). 그 결과 가나안 원주민들은 거의 전멸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 '투항'하여 '동맹 체결 시도'에 성공함으로써 살아남았다. 기브온의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의 구원과 출애굽을 위해 애굽에 쏘아 부으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사건과 여호와와 군대를 맞서다가 멸망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항하다가 전멸당하기' 보다는 '투항하여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이에 기브온의 장로들은 교묘한 꾀를 내어 먼 지방에서 온 사절단처럼 위장하여 이스라엘이 방심한 틈을 타서 동맹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수9:20).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의 구원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 뒤늦게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기로 결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¹⁴⁹⁾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신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파죽지세로 연전연승을 거듭하며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거의 전멸시켰고 가나안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스라엘이 미처 정복하지 못한 약간의 족속들과 땅들이 남아 있었지만(수11:21-23), 그 세력이 미진하였기에, 남은 족속과 땅의 정복은 후대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수13:1-7).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에게 가문별로 분배하였다(수18장). 물론 각 지파의 가문들이 분배받은 땅은 지도상의 분배이고, 실제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족속들과의 숭한 전투를 치러야 했다(삿1장).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모범 사례가 된 경우는 유다 지파에 의한 헤브론 정복이다(수14,15장). 45년 전 갈렙은 헤브론에 거주하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 곳을 취하자라고 했지만, 이미 열 명의 정탐꾼들에 의해 공포와 절망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유다지파의 수장이 된 갈렙은, 지금 비록 85세의 노장이 되었지만, 여호수아를 찾아가 헤브론 산

149) Schmittjer, *토라 스토리*, 602; Waltke, *구약신학*, 607. 이 진리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의 구원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수6:25).

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 곳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했다(수14:15). 요셉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에브라임 산지 정도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 땅이 좁다며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땅까지 개척해서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었다(수17:18). 반면에 이때 분배받은 땅에 남아 있는 원주민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기업을 취하리 가는 일에 미운적인 태도를 보인 지파들도 있었다(수18:2).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땅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땅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2.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범한 하나님 나라(수20-23장)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의 정복과 분배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정복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을 영구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왕이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을 다해야 했고, 하나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신정(神政)통치의 방식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해야 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범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신정 통치의 원리를 제시해 주셨다.

가. 오직 하나뿐인 실로의 중앙 성소

일찍이 모세는 모압 평지에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곳의 원주민들처럼 “모든 산들과 언덕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등” 아무 곳에서도 예배하지 말고(신12:2,3), 오직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다(신12:5,14,18,26;14:25;15:20;16:15;17:8). 하나님이 중앙 성소를 강조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 유일신 신앙이 빈절되고 혼합종교가 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의 편의를 따라 신당

들을 짓고 그곳에서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며 가나안 땅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모든 가나안적 요소를 배격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교적' 목적으로 철저한 중앙 성소 원칙을 고수하셨다.

한편 중앙 성소 제도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중앙 정부의 기능을 하면서 '정치적' 목적도 달성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각 지파의 기업에 따라 전국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수12,13장).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각 지파간의 분파의식이 생기고 지파간의 거리감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국각지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 년에 세 차례, 즉 유월절(무교절), 칠칠절(맥추절), 초막절(장막절)의 절기에는 반드시 중앙 성소로 올라오게 하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셨다(출23:14-17; 신16:16).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첫 수확한 보릿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맥추절,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초막절은 모두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과 배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지 일 년에 세 번씩은 반드시 중앙 성소로 올라와 절기들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다.

여호수아 22장에 기록된 요단강을 사이에 둔 지파들 간의 제단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와 갈등 극복의 사건은 중앙 성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중요성이 무엇 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가나안 정복의 대업이 완료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해산되어 각 지파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 때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쌓았다(수22:10). 가나안 본토에 살고 있던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 지파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크게 오해하여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수22:12). 하지만 요단 동편 지파의 대표자들은 가나안 본토에서 파송된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요단강 근처에 세운 제단의 목적은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훗날 요단 동편에 사는 후손들과 가나안 본토에 사는 후손들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단의식

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했다(수22:23,24).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비롯하여 모든 제사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서’ 즉 가나안 본토에 있는 오직 하나의 성소로 올라가서 드릴 것임을 확인했다(수22:27). 요단 동쪽 지파의 충분한 설명과 해명을 통해서 요단 강 근처에 세워진 제단에 대한 모든 의심과 오해가 풀렸다. 이에 가나안 본토의 지파들과 요단 동쪽 지파들은 요단 강가에 큰 기념비적인 제단을 세워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양쪽 지파들은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기념물로 삼았다(수22:34). 이 사건은 중앙 성소가 요단강을 사이에 둔 지파들 간의 분단의식을 극복하게 해 주는 ‘정치적’ 역할과 함께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지만 양쪽 지파는 오직 중앙 성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임을 확인해 주는 ‘종교적’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 성소는 신정통치의 개념에 발맞추어 하나님을 주 통치자로 모시면서 전국각지로 흩어진 지파들을 통합하는 중앙 정부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다.¹⁵⁰⁾

나. 48개 성읍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거주할 곳으로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을 제공해 주셨다(민35:7; 수21:48). 그들은 중앙 성소에서 행해지는 각종 제사와 다양한 절기 축제 때 백성들에 의해서 드리진 예물들(신14:29; 16:11,14), 드리진 희생 제물들(신18:1-8),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드린 십일조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민18:20-28).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신정통치적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 집단이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과 중앙 성소 소유의 기능인 최고 법정에서의 재판관의 일을 감당했다(신17:19). 일반 레위인들은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는 특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성읍들에서 보내면서 주로 일반 백성들을 위한 율법교육(신31:9

150) Trent C. Butler, *Joshua* WBC (Texas: Word Books, 1983) 250.

-13:33:10)과 사법행정의 역할(신17:9;21:5)을 감당했다.¹⁵¹⁾ 일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에 머물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쳐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평한 상황을 고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범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자 하나님 나라의 근본 토대인 공평과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각 공동체 안에서 구현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과 이상이 성취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 언약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순종의 중요성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국가로, 모든 국가 권력의 기원은 백성에게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이나 인간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나라이다. 하나님은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이 주관하는 예배와 전국 각지에 흩어진 레위인들의 율법 교육이라는 두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신정 통치의 이상을 가나안 땅에서 펼쳐가실 것임을 밝히셨다. 이제 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넘겨졌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영구적으로 차지할 뿐 아니라 세계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섬지어는 주변 민족들의 비웃음과 놀림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레18:24;신28:63,64).¹⁵²⁾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은 후 남아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각 지파가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땅들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을 준수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촉구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강한 용사와 군

151) Waltke, *구약신학*, 616.

152) Martens, *하나님의 계획*, 156.

대가 되어 ‘한 명의 이스라엘’이 ‘천 명의 대적’을 쫓아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수23:10).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한 통속이 되어 이방 신들의 유혹과 꾀에 넘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남기진 족속들이 ‘가시’ ‘울무’ ‘뿔’ ‘채찍’이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수23:15).¹⁵³⁾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도전적인 최후 권면의 말을 건넨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새겔에 불러 모아 놓고 ‘언약 갱신 의식’을 치른다(수24장).¹⁵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성취하든지(신28:1-14),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모든 저주들을 성취하든지(신28:15-68)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이스라엘의 순종과 충성은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정착과 확장으로 이어지겠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충은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위기와 실패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너희가 십길 자를 오늘 택하라”(수24:15)는 여호수아의 도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네 번씩이나 맹세한다(수24:16,18,21,24). 이 자발적이고 확고부동한 충성 서약 위에 중재자 여호수아는 왕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새겔 언약을 체결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다(수24:25,27).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비극적인 실패로 끝날 것인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맹세한 언약의 말씀들에 얼마나 철지한 순종과 충성을 다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게 되었다.

3. 신정 통치의 실현을 위한 이스라엘의 도전과 실패

하나님이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즉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153) Waltke, *구약신학*, 618.

154) Ibid., 619. 새겔 언약도 고대 근동 지방의 종주권 언약과 비슷하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언약의 창시자로 인정하는 전문(24:2상), 왕이 과거에 배푼 은혜를 열거하는 시언(2하-13),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규정(14,15), 헌신 의식(16-24), 조약 문서의 보증(25,26)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국가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었다. 야곱의 친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수 십 명에 불과했는데, 400여 년 만에 그 숫자는 200만을 헤아릴 정도의 민족적 규모로 급성장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성취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10가지 제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셨고,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 이스라엘은 찬란한 승리를 기두며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과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수15:63;16:10;17:11-13;삿1:21-23). 남겨진 가나안 땅과 족속들에 대한 정복의 과제는 여호수아 후대의 사람들에게 남겨졌다. 사사기는 남겨진 미션과 관련해서 여호수아 사후에 전개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치절한 실패의 역사를 민낯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그 결과

남겨진 가나안 땅 정복의 성공과 실패는 중앙 성소에 좌정해 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심 여부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은 또 다른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중앙 성소의 제사장들과 전국 각지로 흩어진 레위인들을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로 내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신정 통치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 사후 다른 지도자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남겨진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제 문제’를 들고 실로의 중앙 성소로 올라가 그곳에 좌정해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삿1:1)고 물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중앙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기록은 사사기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어졌다.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부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지리멸렬한 패배를 맛보거나 가나안 원주민들의 공세에 밀려 그들과 불편하고 위험한 공존을 하거나, 오히려 그들 사이에

서 소수파 채류민 신세로 전락해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단 지파처럼 원래 분배된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전혀 영똥한 곳으로 이주해 사는 경우도 있었다.¹⁵⁵⁾ 중간 중간에 맞본 간헐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지파들이 남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빈번한 좌절과 패배를 거듭 맛보게 된 이유는 그 땅의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그들의 탄을 헐어 버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삿1:27-37;2:1-5;출23장;신7장).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진짜 이유는 그들을 쫓아낼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다.¹⁵⁶⁾ 그리고는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죄된 욕망을 따라 살면서 가나안 주민들과 똑같이 타락해 갔다.

나. 전국각지로 흩어진 레위인들의 철저한 실패

사사들이 신정 통치의 대리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치적 지도자들이었다면, 레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스라엘의 영적 성결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전국각지로 흩어진 레위인들의 사명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국각지의 48개 성읍으로 흩어진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155) Waltke, *구약신학*, 692. 유다지파가 가나안의 스밧 성읍을 철저히 진멸한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지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 땅을 오염시키는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는 해람(Holy war)을 전혀 실천하지 못했다.

156)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기까지: 구약 역사서의 문예적-신학적 서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158-163. 저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들에게 그렇게 쉽게 유혹당한 이유를 이념과 문화 갈등으로 설명한다. 유목민이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연과 비와 계절의 순환을 관찰한다고 믿고 있었던 가나안의 신들(바알, 아세라, 아스다룻, 모트)의 도움이 필요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가 가나안 종교 시스템이 기인한 것으로 보고 가나안 신들에 매력을 느꼈다. 게다가 풍성한 결실을 위해 가나안 신전에서 행해지던 성적 활동은 세속화를 추구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큰 유혹이자 매력이었다.

사명을 망각한 채 일반 백성들과 한통속이 되어 가나안의 우상문화와 도덕적 타락에 합류하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성읍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받았다.

사사기 기자는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도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지없이 실패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레위인과 관련된 두 편의 비디오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¹⁵⁷⁾ 첫 번째 일화는 유다 베들레헬에 거주하던 레위인 청년의 방랑이야기이다(17장). 레위인은 각 지역에 정착한 개별 지파들의 물질적인 공궤를 받으며 그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파송 받은 자들이었다. 하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헬 사람들은 자기 성읍에 머물고 있는 레위인 청년의 생계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던 레위인 청년은 사명을 뒤로 한 채 먹고 살기 위해 여러 곳을 헤매다가 마침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미가는 자기 집에 개인 사당을 차리고 신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세웠다(17:5). 하지만 제사장으로 세운 아들은 레위지파 출신이 아니었기에,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레위인 청년이 찾아오니까 당장에 은 열 냥과 의복 한 벌과 음식 제공이라는 연봉을 제시하면서 그를 자기 집안의 복과 번영을 벌어주는 제사장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17:12,13). 이에 레위인 청년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는 미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그 집안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 하지만 레위인 청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냐’(18:19)는 단 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가 집안을 떠나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자기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인의 생계를 보장해 주지 못한 유다 지파 베들레헬 사람들의 무책임,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를 떠나 먹고 살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도는 레위인의 방랑, 자기 집에 사당과 신상을 모시는 것도 모자라 돈으로 제사장을 사서라도 복 받기만을 원했던 미가 집안, 무력으로 레위인을 빼앗아 자기 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 앉혔던 단 지파의 파렴치함 등 일련의 사건들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느슨해져 있었는지, 그들의 영적 타락이 어느 정도로 심각해져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57)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219-220. 미가의 이야기와 레위인 이야기는 키아스틱(chiastic) 구조를 이루면서 사사기의 주제(17:6;18:1;19:1;21:25)와 연결되어 있다. 첫째, 두 스토리가 모두 레위인과 연관된다. 둘째, 레위인 개인의 운명이 민족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셋째, 두 스토리 모두 중앙 성소가 있는 실로를 언급한다.

두 번째 일화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관련된 첩 사건이다(19장).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하는 레위인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첩을 취하고, 베냐민 지파의 한 무리가 그 첩을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으니까 윤간(輪姦)까지 하고, 화가 난 레위인이 죽은 첩의 시체를 토막 내어 열두 지파에게 보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을 뉘우치기 보다는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텀버들고, 격분한 열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벌여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뒤늦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인신 납치를 용인해 주는 등 양심에 화인 맞은 듯한 비극적 사건들이 벌어졌다(20-21장). 이 사건은 사사 시대의 영적 지도자와 일반 백성의 윤리와 도덕적 타락이 어느 정도로 심각해져 있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사사시대 백성들의 부정부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고 혼돈스러운지를 극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사사기 기자는 베들레헬에 살고 있던 레위인의 신앙적 탈선을 둘러싼 미가 집안과 단지파의 종교적 타락(18장)과 에브라임에 거주하던 레위인의 윤리적 탈선을 둘러싼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의 도덕적 부패와 타락(19장)의 두 현장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신정 통치의 꿈과 이상이 얼마나 신속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갔는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록과 정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채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때문에(17:1;18:1;19:6;21:25) 영적, 도덕적, 정치적 부정부 상태가 벌어졌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프로젝트가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보도하였다.¹⁵⁸⁾

제 4 절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한 보충해설과 질문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사사기까지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2차 프로젝트에 관한

158)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228-230.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사사시대 백성들의 치절한 실패는 결국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분만을 섬길 때에만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락을 읽을 때 개별적인 인물과 사건에만 집중하다보니 이 단락에서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발전과정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단락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정에 대한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족장들의 이야기(창12-50장)를 개인의 영웅적인 이야기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단락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하는 핵심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주셨고(수 24:2), 이삭에게는 일방적으로 백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며(창26:12),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야곱을 베엘에서 먼저 찾아오셨다(창28:15). 이 외에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은 모두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심으로 언약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었다(창 21:3;25:21;30:22).

그런데 족장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 무작정 애굽으로 내려가 위기를 자초하고(창12:10), 아내를 두 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며(창12:13; 20:2),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다(창 16:15).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창25:23)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으면서도, 장자인 에서를 더 사랑함으로(25:28) 언약의 후손에 관한 중대한 혼란과 함께 가정불화의 불씨를 제공한다(창27:41). 야곱은 압북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지 전까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았다(창25:31).

그러나 이렇게 연약함에 휩싸여 있던 족장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은혜의 돌보심을 체험하면서 점차 신앙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출한 믿음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된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사리를 보호해 주시고(창12:17;20:18),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끊긴 절망적 상황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서(창21:2), 나중에는 죽음 한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황당한 명령에도 묵묵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간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던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이 헛되지 않게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창31:9,24)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추적해 보면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수습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인약의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족장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절된 사건들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정이라는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단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굵직한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출애굽의 구원사건 이후에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한 교재(textbook)는 세 가지, 즉 율법, 성막과 제사제도,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하게 된 다양한 고난의 현실들이었다. 율법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분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성막과 제사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는 어떻게 처리되고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방법을 제공해 준다. 광야에서 경험한 갖가지 고난의 상황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함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

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셋째, 여호수아에 나오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를 죽어야 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을 인정도 없는 무자비한 전쟁의 신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분명한 원칙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행위이지, 아무런 원칙도 없이 단순히 하나님이 편애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기 위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신 타 민족 말살 및 무자비한 인종 청소 전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사이에 벌어진 헤렘, 즉 기록한 전쟁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을 상실할 만큼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할 때까지 약 400여 년을 기다리신 후에야(창15:16)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났던 동일한 이유로 그 땅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러한 우려가 비극적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 사사시대로 진입하기 전, 하나님이 천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통치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수20-24장).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밝히신 향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오직 하나뿐이었던 중앙 성소(정부)와 각 지파로 흩어진 레위인들의 지방자치를 통해 운영되는 신정정치 제도였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일 년에 세 차례, 즉 유월절(무교절), 칠칠절(백추절), 초막절(장막절)의 절기에는 반드시 중앙 성소로 올라와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했고(출23:14-17;신16:16), 각 지파의 성읍들로 흩어진 레위인들은 자기가 머무는 성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록한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써 이방 나라와 민족들의 사상과 문화에 붙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록함을 유지하게 해야 했다. 사사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천명하신 신정정치의 이상은 성막과 율법의 두 기둥을 중심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였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섯째,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시대 백성들의 타락을 단순히 윤리적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사사들의 영웅적 활약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 활동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사들 개개인의 영웅적 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신정정치的重要한 원리로 제시하셨던 설로에 있었던 중앙 성소의 기능과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진 레위인의 역할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력화되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성소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1:1)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께 던진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중앙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왕의 뜻을 묻거나 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후련구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가 왕이 되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섯째, 사사기 기자는 가나안 땅에서 세롭게 시도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지없이 실패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레위인과 관련된 두 편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17장,19장). 이 두 사건은 마치 우리에게 두 편의 비디오를 보여주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강하게 각인시켜 준다. 레위인들의 사명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록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국각지의 48개 성읍으로 흩어진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한 채 일반 백성들과 한통속이 되어 가나안의 우상문화와 도덕적 타락에 합류하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성읍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에호수아를 통해서 밝히신 신정정치의 두 기둥인 중앙 성소와 율법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전국각지로 흩어진 레위인들이 사명을 망각한 채 가나안의 우상문화와 도덕적 타락에 오염되면서 가나안 땅에서 민족적 차원으로 시도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또 다시 좌초되고 말았다.

1. 이해를 위한 질문들

가. 창세기12-50장

1.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려 했던 백의 후손들을 온 지면에 흩으

- 신 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려고 계획하셨습니까?
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창18:18)
3.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선택하여 부르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족장들을 부르시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 족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려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5. 족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돌보심 속에서 그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6.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입니까?

나. 출애굽기-신명기

1. 애굽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하여 나라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민족적 규모로 성장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했습니까?(출 1:7)
2.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에게 일깨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출9:14,16,29)
3.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베푸신 홍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출14:13,14)
4.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을 주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 체결의 시점이 열 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5. 하나님이 베푸신 율법과 성막과 제사의 기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6.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무엇입니까? 광야 훈련의 과정은 얼마 동안 지속되었습니까?

다. 에호수아, 사사기

1.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합니까?(창15:16;레25:8-11;신2:10-23;수23:14;24:19-20 참조)

2.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창13:14,15;15:7;민21:1-3;수2:10;6:17;8:24-29)

3.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와 아이싱 전투의 패배를 염두에 둘 때, 이스라엘이 수행한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리의 관건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수5:2,10 참조)

4.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살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 뒤늦게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기로 결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수9:20)

5.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모범 사례가 된 유다 지파에 의한 헤브론 정복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수14,15장)

6.가나안 정복전쟁이 마무리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밝히신 그 땅에서의 통치의 중요한 원칙과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신12:5,14,18,26;민35:7;수21:48)

7.오직 하나뿐인 중앙 성소 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으로 흩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8.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비극적인 실패로 끝날 것인가의 여부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수24:16,18,21,24)

9.여호수아 사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빈번한 좌절과 패배를 거듭 맛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삿1:27-37;2:1-5)

10.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도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지없이 실패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레위인과 관련된 두 사건들을 통해 설명해 봅시다(삿17,19장).

11.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프로젝트가 또 다시 좌초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17:1;18:1;19:6;21:25)

2. 적용을 위한 질문들

1.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록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라면, 당신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엡2,8,9절).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선민의식과 타 민족들에 대한 배타의식이 당신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왜 그런 의식이 생겨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의식을 어떻게 떨쳐 버릴 수 있는지 말해 봅시다.

2. 출애굽의 구원 사건 이후에 시내산 언약과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구원과 관련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비록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윤리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3. 하나님은 광야의 다양한 고난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당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갖가지 고난들을 통해 무엇을 훈련하고 배워야 하겠습니까?

4. 하나님의 기록한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주민들과의 공존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갖가지 우상들과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서 당신은 세상의 죄악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5.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제시하셨던 신정정치의 두 기둥이었던 성막과 율법은 오늘날에도 시대를 뛰어넘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예배(성막과 제사)와 말씀(율법)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6. 사사시대의 타락상처럼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거대한 성장주의, 개교회주의, 유교적 권위주의와 사제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화 등으로 심각한 부패와 타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끝없이 추락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 지 당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제 6 장

하나님 나라의 3차 프로젝트(삼상-말라기)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을 대리통치자로 세우셔서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1차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2차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셨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속하게 저버림으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도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또 다시 위기를 맞이하면서 좌초되고 말았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언약과 왕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3차 프로젝트를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하셨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여호와와 기록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기록한 사명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미션이 또 다시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위대한 프로젝트는 끝내 실패하고 만 것인가? 아니다. 왕정시대와 포로시대에 활동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비록 그 시대의 왕들과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메시아적 왕이 나타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쳐부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성취되고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임을 내다보았다. 마지막 날이 오면 민족적 이스라엘 모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사4:3;6:13;17:6;슌2:7,9;3:12-13)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사45:22;55:5;56:6-8)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세 백성을 통해 이 땅에 기록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갈 것이다.

제 1 절 왕정 제도를 통한 신정 정치의 실험과 실패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밝히신 통치체제는 순수한 신정정치였다.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한 최고 통치권자인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셨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백성을 다스리지 않으셨다. 이호와 하나님은 중앙 성소에 좌정해 계시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셨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정정치 제도를 떠받드는 양대 기둥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제사장들은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섬기면서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하고 중보해야 했고, 전국 각지로 흩어진 레위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록한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야 했다. 하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신정정치의 이상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일반 백성뿐 아니라 종교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모두가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갖가지 우상들을 섬기며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 주변의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위협과 공격을 받으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기대하셨다. 하지만 주변 대적들의 침입과 압제로 인해 절대적 생존의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사무엘에게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 달라며 체제와 제도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명령에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이 났을 때 흩어진 지파들을 하나로 연합해서 싸움을 주도할 강력한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은 그들이 내세운 명목상의 이유와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제도를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였다(삼상 8:5,7).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공동체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록한 백성으로 구별된 공동체였다. 그렇기에 이스

라엘은 열방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 분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신7:7-11), 열방의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았다(출19:6). 하나님은 이미 오경의 가르침을 통해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이 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누누이 경고해 오셨다(출23:23,24;레18:1-4;신4:5-8;18:9-14).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망각한 채, 열방의 한 나라처럼 되고 싶다고 나선 것이다.¹⁵⁹⁾

이에 사무엘은 열방과 같이 왕을 세우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폐해가 무엇인지를 강하게 경고하였다. 왕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 백성들을 징용할 것이고, 아들들을 취해 군사로 부릴 것이며, 딸들을 취해 시녀로 삼을 것이다. 또한 왕은 밭과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소떼와 양떼와 나귀들을 취해 사치스러운 왕궁 생활을 영위할 것이고, 왕권을 유지하고 신하와 관리들에게 봉급을 주기 위해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다(삼상8:10-18).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정제도는 결국 자신들이 세운 왕의 종이 되는 길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사무엘의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도 뒤로 물러하지 않고 왕정제도를 끝까지 요구하고 나섰다(삼상8:19).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요구에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알고 계셨으면서도(삼상8:7), 백성들의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정을 허락하셨다(삼상8:21-22).¹⁶⁰⁾

159) Waltke, 구약신학, 807;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305.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한 왕정 제도의 요구를 ‘천왕조적 본문’(삼상9:1-10:16;11:1-15)과 ‘반 왕조적 본문’(삼상7:1-8:22;10:17-27;12:1-25)으로 대비시키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사무엘서 기자가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경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이”되려고 한 점이다(출23:23,24;레18:1-4;신4:5-8;18:9-14). 이스라엘의 사명은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세계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한 것은 열방 가운데 독특한 민족으로서의 위치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서 평범하게 살겠다는 사명포기의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사무엘서 기자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160)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303. 왕정제도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신정 정치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신정정치의 이상이 실현되려면 사사가 됐든 왕이 됐든 간에 반드시 ‘대리 통치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장차 왕을 세울 때 여호와께서 ‘지명하시는 왕’을 선택해야 했다(신17:15).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셨지만, 당신의 주권적 통치와 맞는 방식으로, 즉 언약의 틀 안에서만 왕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셨다.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과 같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신적인 왕(divine-king)이 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이기에 모든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행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소명과 요구에 복종해야 했듯이 이스라엘의 왕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일 중의 하나는 “율법을 복사하여” 간직해서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힘써 지켜 행하는 것”이었다(신17:19).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직을 ‘언약의 직책’(covenant office)으로 규정 하셨기에 왕에게는 언약적 의무(covenantal obligation)를 성실히 감당할 책임이 주어졌다.¹⁶¹⁾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을 넘어서는 특별한 존재이거나 율법에서 제외되는 특권적 인물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하게 시내산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다.¹⁶²⁾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일한 소명과 요구에 복종해야 하며, 동일한 언약적 축복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존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됐다. 그렇기에 사부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왕과 함께 백성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삼상12:25).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새로 만든 왕정 제도에 의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이스라엘은 새롭게 임명된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당면한 과제는 신정 정치나 왕정 정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왕정 정치를 통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고 계시는 신정 정치,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느냐가 진짜 문제였다.¹⁶³⁾

161)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오경 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91-294.

162) Waltke, *구약신학*, 741.

163)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305.

1. 통일왕국 시대의 왕들

가. 백성이 내세운 실패의 모델, 사울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임명함으로써 왕권을 견제함과 동시에 왕정 제도가 여호와와 통치 안에서 자리매김하도록 하셨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삼상9:16), 기름부음을 받아(삼상10:1), 여호와와 신에 감동되고 능력을 부여받았다(삼상10:6).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으나 그리하지 못했다.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 왕의 실험이 실패로 끝나게 된 두 가지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미스바로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이기고 사울이 독단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다(삼상13장).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사울의 수도 기브아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5). 블레셋이 수적으로도 우세했고 부기도 월등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면서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을 찾아 몸을 숨기기에 바빴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8). 정한 기한대로 7일간 지나렸으나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군대의 해체를 막기 위해 오직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려 버렸다(9).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의 처지를 동정하거나 수궁하지 않고 다짜고짜 그를 망령된 자로 힐난하며 무섭게 책망했다(13).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한 불순종의 행위로 간주하면서, 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과 그의 나라가 결코 길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했다(삼상 13:14).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진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의존적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된지 이 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자신은 언약적 직책을 맡은 여호와와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조금도 없고, 그저 열

방의 왕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통치권을 행사하며 절대 권력을 가진 ‘독립적 왕’이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받았다.¹⁶⁴⁾

두 번째 사건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과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아말렉 왕과 살진 가축들을 살려둔 것이었다(삼상15장).¹⁶⁵⁾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사건을 떠올리시며 아말렉 사람과 가축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2,3). 그러나 사울은 백성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둔 후, 아말렉 왕 아각과 살지고 기름진 소 떼와 양떼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 두었다.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모두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그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남겨 둔 것’(15)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핑계일 뿐이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적의 왕을 사로잡아 옴으로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백성들에게 떠벌리면서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12).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자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반역이었다.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저버린 명백한 반역행위로 규정하면서(23,26),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과 이스라엘 나라를 그 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줄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전달해 주었다(28,29).

이스라엘의 왕은 고대 근동 나라들에서의 왕과는 다른 것이었다. 고대의 왕은 절대 권력을 소유한 신적인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의존적인 왕이었다. 왕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일반 백성과는 달리 율법을 넘어서는 초법적인 존재도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가르침 아래 놓여 있었다. 따라서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왕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왕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왕

164)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309.

165) Waltke, *구약신학*, 745.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헤렘(Holy War), 즉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이었다.

정제도 실험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축출당하고 받았다. 사무엘서 기자는 실패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왕정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종의 통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교훈해 주었다.¹⁶⁶⁾

나. 하나님이 재시하신 성공의 모델, 다윗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새롭게 선택하신 왕은 다윗이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세의 막내아들이었다(삼상16:1,2). 사실 사무엘은 이세의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삼상16:6)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용모와 신장에 마음이 끌렸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왕으로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 즉 “마음”임을 일깨워 주셨다(삼상16:7). 하나님은 외모가 출중했던 이세의 일곱 아들들을 다 거부하신 후에 여덟째아들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삼상16:12).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 즉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사무엘서 기자는 블레셋의 전쟁 영웅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삼상17장).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은 큰 군대를 앞세워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였다. 거인이었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진신갑주로 중무장을 한 채로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었다(8-10). 하지만 잔뜩 겁을 집어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물을 전달해 주기 위해 진선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분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끊어오르는 의분을 참지 못한 채 사울에게 달려가 자신이 나가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다(32). 다윗은 만류하는

166)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312-313.

사울을 설득하기 위해 과거 자신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윗은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에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나타나 양 새끼를 움켜 달아나면 그 맹수를 따라가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원해 냈고, 맹수가 탐버들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면 결투를 벌여 그 맹수를 쳐 죽였다(삼상17:34,35). 다윗은 과거 맹수와 싸워 이긴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살아 있는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골리앗도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인 것처럼 골리앗도 반드시 때려눕히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다윗은 그저 자신이 사나운 맹수들을 쳐서 죽인 영웅적인 행위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윗은 사자와 곰을 때려눕히고 양 새끼들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용기의 결과물이 아니라 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37). 과거 다윗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번에도 골리앗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무모할 정도의 순전한 마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중심이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소유했던 이 마음의 중심이야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과 자격이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었고,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언약의 축복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⁶⁷⁾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삼하7장). 다윗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하사하신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11). 여기서 집은 다윗 계열의 후손, 즉 다윗의 왕조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호와가 세우시는 다윗의 집, 즉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보전될 것이다(16).¹⁶⁸⁾ 특히 다윗 언약을 담고 있는 역대상 17장에서는 다윗 언약과 왕조의 영원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데, “영원히”라는 어구가

167) Waltke, *구약신학*, 748-749.

168) *Ibid.*, 770-771.

무려 8번이나 등장한다.¹⁶⁹⁾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 여호와는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나는 그 아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14).¹⁷⁰⁾ 이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즉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이다. 설령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겠지만, 그에게서 ‘은총’(헤세드)을 빼앗지는 않으실 것이다(15). 이것은 다윗 후손의 왕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겠지만, 그에게서 왕좌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맺어진 다윗 언약의 ‘무조건성’을 엿볼 수 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발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빼앗겼다.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면 다윗의 후손들도 불순종했을 때는 사울처럼 왕권을 빼앗겨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거부할 때 보이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 편에서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자기 백성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에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다윗 언약이 무조건적이지만 이 언약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백지 위임장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무리 다윗 언약이 무조건적이라고 해도, 그 언약의 축복은 오직 다윗의 후손들이 모세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¹⁷¹⁾

다.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에 실패한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자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은 밋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다(삼하12:24,25).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부한 신적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왕권과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고(대상29:25),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가며 그

169)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494.

170) 창세기에 나타난 “여자의 씨”(3:15)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후손)”로, “다윗의 씨(후손)”로 점점 더 구체화 되다가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171) Waltke, *구약신학*, 771.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셨다(대하1:1).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열방의 왕들은 그의 왕국의 견고함과 영광스러움을 존경하며 부러워하였다(왕상4:34;10:24). 솔로몬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하신 신적 지혜와 부와 영광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견고한 동맹관계와 무역관계들을 만들어가며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실제로 솔로몬은 에굽(왕상3:1), 두로, 모압, 압몬, 애돔, 시돈(왕상11:1)을 비롯해서 아라비아 끝에 위치한 스바 등 수 많은 나라들과 돈독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¹⁷²⁾ 솔로몬이 1000여 명의 차첩을 기르렀다는 것은 그의 정치적 파워와 영향력이 주변 나라들에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비치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왕상11:3).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신적 지혜와 함께 주변 나라들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파워와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밭미암아 복을 것이라”(창12:3)는 말씀을 성취해야 할 시대였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는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땅’에 대한 약속이 이미 완벽하게 성취된 때였다.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고”(왕상4:25), 솔로몬 왕이 “유브라테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에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그가 사는 동안에 그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심겼더라”(왕상4:21)고 증언하면서 솔로몬 왕국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창15:18;신1:7;수1:4). 이제 솔로몬 왕국의 남은 과제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 지혜와 정치적 파워와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전 건축 봉헌 예식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일깨워 주셨고, 솔로몬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 미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

172) Iain Provan, V. Philips Long, Tremper Longman III, *이스라엘의 정경적 역사 (A Biblical History of Israel)* 김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505-511.

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왕하8:41-43).¹⁷³⁾

그러나 솔로몬은 초기 통치 모습과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일방의 왕들처럼 변질되어 갔다. 솔로몬이 당시 국제적 관계를 따라 결혼을 통해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견고한 유대관계를 유지했지만, 정상적인 숫자는 넘어선 수많은 처첩들은 그의 왕권 후기에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주변의 민족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만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왕상11:2;신17:17 참고)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며 무시했다. 결국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가 거느리던 처첩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신들에게로 마음이 돌아선 솔로몬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에 신당들을 지어 주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마음대로 분향하고 제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왕상11:7,8). 하나님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자 두 번씩이나 천히 나타나셔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입히 명령하시며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끝내 여호와와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왕상11:10).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변절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통치 영역이 확대되어 갈수록 자기 자신과 여러 성취 업적에 빠져들고 말았다. 솔로몬은 자신이 기할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 부려 13년 동안이나 막대한 자금과 노동력을 쏟아 부었고(왕상7:1), 권력을 남용하여 세금을 매우 높게 책정함으로써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자신의 궁중연회를 위해서 너무나 지나친 음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왕상4:22,23).¹⁷⁴⁾

173) Waltke, *구약신학*, 832.

174) Paul Johnson, *유대인의 역사 (A History of the Jews)* 김한성 역 (서울: 포이에마, 2014), 111-117. 솔로몬의 과함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성전과 궁전 그리고 하솔과 뜨것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지혜와 부와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세계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고 말았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비록 그가 다스리던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겠지만 “내가 네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왕상11:11)는 심판을 선고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축복하고자 하셨던 계획은 솔로몬의 변질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¹⁷⁵⁾

2. 분열 왕국 시대의 왕들

솔로몬 왕을 마지막으로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시기인 분열 왕국시대가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분열 왕국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들어 놓은 타락의 역사였다.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바알의 우상으로 대치하였으며, 갖가지 부도덕과 타락을 일삼았다.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북쪽 이스라엘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낭떠러지를 향하여 질주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줄기차게’ 심판과 멸망의 길로 달려갔다. 이것은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남쪽 유다 왕국에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왕들도 있었지만, 나머지 왕들은 북 이스라엘의 왕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

와 계셀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 엄청난 인력을 강제 동원했다. 왕실기록에 의하면 체석장 인부 8만 명이 관리 3,300명의 지사와 감독을 받았고, 목석까지 돌을 운반하는 인부 7만 명과 목재를 베기 위해 레바논으로 파견된 인부가 3만 명이었다. 솔로몬은 1500대의 전차와 4000필의 말을 보유하고 있었고, 므깃도에는 150대의 전차와 400필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야심찬 계획을 갖고 밀어붙였던 여러 건축물과 성들의 완공을 위해 부리하게 동원한 노동력과 과도한 세금징수가 결국에는 왕국분열의 또 다른 단초가 되고 말았다.

175) Waltke, *구약신학*, 833-834.

고 백성들과 함께 갖가지 우상을 섬기며 지속적으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결국 죄의 길에서 끝내 돌아서지 못한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앗수르에 의해서,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다.

가. 북 이스라엘 왕국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다윗 가문을 반역한 후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열 지파를 이끌고 북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신앙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두 나라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비록 정치적으로 나라가 나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하는 언약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일 년에 세 번씩은 예루살렘에 있는 남 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일 년에 세 차례씩 남쪽 예루살렘으로 성인 남자들을 보내면, 그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를 우려했다. 결국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쪽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왕상12:29),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웠으며(왕상12:31),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렸다(왕상12:32,33).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적 규례들, 즉 중앙 성소 외에서의 제사 금지(신12:5-7), 형상 만들기 금지(신9:8-21), 비(非)레위 계열의 제사장 금지(신18:1-8), 절기 규정 준수(신16:1-17) 등을 모두 여기는 중대한 범죄 행위들이었다.¹⁷⁶⁾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의 종교적 조치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인지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셨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가 행하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이전혀 고집을 피우며 대체된 에베 장소에서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집안이 이

176)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407-408.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는 준입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왕상14:34).

여로보암이 행한 중대 범죄 행위는 그 이후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나머지 왕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열왕기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여로보암 이후 세워진 열아홉 명의 왕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동일하게 답습했다(왕상15:34;16:19,26,31;22:52).¹⁷⁷⁾ 특히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오므리 왕은 자기 아들 아합을 위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려왔는데, 이 여인의 주도로 이스라엘에 바알 종교가 도입되면서 바알의 제단들이 전국으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 북 이스라엘 왕국은 바알 신앙으로 삽시간에 물들이 버리고 말았다. 아합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이스라엘 왕들뿐 아니라 남 유다 왕들에게도 미쳤는데, 실제로 열왕기 기자는 유다 왕인 여호람, 아하시야, 므낫세 왕을 평가할 때 “아합같이 행하였다”며 아합을 악한 왕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왕하8:18,27;21:1-8). 여로보암과 함께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한 또 한 명의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실제로 열왕기 기자는 여로보암과 아합이 범한 죄가 결합되어 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왕하17:7-23).¹⁷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셨지만, 왕들과 백성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갖가지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말았다. 결국 북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앗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앗수르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이방 땅 사방으로 모두 흩어져 살게 되었다.

나. 남 유다

역대기 기자는 잘못된 예배 체계와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한 북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무시한 채, 남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177) 북 이스라엘의 20명 왕 중에 어떤 왕도 선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예후가 가장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으니(왕하10:30), 그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는 못했다(왕하10:28, 29).

178) 김지관,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411.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왕들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왕정체제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왕은 다윗이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열방의 왕들처럼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분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기에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한 다윗은, 마치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했는지를 평가하는 악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정반대의 측면에서 남 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를 평가하는 선의 기준이 되었다. 역대기 기자의 평가에 의하면 히스기야, 요시아 같은 왕들은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선한 왕들로 인정받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법제도와 종교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남 유다에 널리 퍼져 있던 이방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와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다. 히스기야는 유다 성읍에 세워져 있던 산당들과 아세라 복상들을 제거하고(대하31:1), 성전을 정화하면서 제사를 회복하였으며(대하29장), 그 동안 잊혀져 왔던 유월절 절기를 성대하게 지켰다(대하30장). 요시아는 성전 수리중 발견한 율법서를 근거로 포괄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왕하22:3-11). 앗수르와 바벨론에서 수입된 천체(해, 달, 별들)와 관련된 우상들, 사람을 불태워 드리던 도벳 제단, 예루살렘 성전 안에 놓여 있던 각종 신상들,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산당들, 벨엘의 제단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유다 전역에서 활동하던 산당의 제사장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거둬들인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 버렸다(왕하23장).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매우 강력하고 철저히하면서도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었다.¹⁷⁹⁾ 열왕기 기자는 요시아 왕을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평가하고 있다(왕하23:25).¹⁸⁰⁾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리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북 이스라엘을 앗수르를 통해 심판하셨지만, 남 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려고 하는 선한 왕들

179) 요시아 왕이 주도한 개혁의 조치들(왕하23:4-20)은 강력하고(폐하고, 불사르고, 쌓고, 깨뜨리고) 철저히하며 광범위했다(모든 제사장들, 개마에서 브엘세바까지).

180)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425. 열왕기 기자에 의하면 요시아는 다윗 이후 유다의 최고 선왕이었다.

이 남아 있었기에, 남 왕국은 북 왕국보다 136년을 더 유지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멸망한 북 왕국의 처참한 모습을 사칭가 자료로 주셔서 남 유다로 하여금 언약을 저버리고 폐역한 길로 접어들지 말 것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교훈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나 남 왕국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불순종함으로써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만이 살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났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대리통치에 의해 전개된 하나님 나라는 또 다시 좌초되고 말았다.

열왕기 기자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 공식(신28:36,37,49-52)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바벨론의 신 마르дук이 여호와보다 강하기 때문도 아니며, 오직 왕이신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언약적 저주의 결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왕하17:24-32;25:18-24).¹⁸¹⁾ 또한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 왕국이 언약적 저주를 받아 파괴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효력이 남아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불씨를 형성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언급한다. 다윗 가문의 후손들, 즉 남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오직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만이 다윗의 길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부러 400여 년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7:16)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비록 다윗 가문의 후손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능성은 그들의 ‘회개와 순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의 약속’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¹⁸²⁾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울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 바벨론 왕의 식탁에 앉는 영예로운 위치로 격상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

제 2 절 선지자들의 선포한 종말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

181)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432-433, 445.

182) Ibid., 435, 448-449, 544-547.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정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정 정치를 통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신정 정치,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구현하는 일에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모두 실패하고 말았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율법의 요구에 복종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적 저주를 받아 왕권과 왕국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왕정시대와 포로시대에 활동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세 언약의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죄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소하고, 그들에게 임할 언약적 저주와 심판을 선고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형식적인 예배와 순종이 없는 종교로 전락한 것을 지적하였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성적인 타락, 경제적 타락, 그릇된 재판을 일삼은 것을 지적하였다. 선지자들의 지적과 책망의 판단기준은 모두 모세의 율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것이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 소송에 관한 진술, 언약적 저주와 심판 선언, 회개 촉구, 종말에 있을 회복의 약속 등을 포함한다.¹⁸³⁾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비록 그 시대의 왕들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성취되고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았다. 이 회복은 종말에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종말에 메시아는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 새 언약을 통해 새로운 백성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백성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세계 열방에서 부름 받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로 구성될 것이다. 이들은 여호와의 영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종말에 메시아는 새로운 창조 질서의 중심지이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토로 새 예루살렘을 만들 것이고,

183) Walter Brueggemann, *예언자의 상상력 (The Prophetic Imagination)* 김기철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9) 128-129.

새로운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성취를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1. 여호와와 날

여호와와 날은 예언서를 관통하는 주제인데, 여호와와 날의 도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창조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이다. 구약 예언서에서 여호와와 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18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 7개의 본문은 미래의 역사적, 우주적 사건을 기대하는 것이고(암5:18-20;사2:12-18;34:1-17;61:1-3;63:1-6;말3:13-4:6), 다른 6개의 본문은 ‘여호와와 날이 가까이 왔다’는 선언을 통해 임박한 사건으로(슥1:1-2:3;겔7:1-27;30:1-9;욥1;사13:6-8), 그리고 나머지 5개 본문에서는 과거의 사건을 기술하고 해석하면서 사용되고 있다(사22:1-14;렐46:2-12;겔13:1-9;애1:12).¹⁸⁴⁾

가. 심판의 날

먼저 여호와와 날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욥1:5:2:6).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그 날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방 태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는 날로만 이해하고 있었다.¹⁸⁵⁾ 이런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이 한번 백하시면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⁸⁶⁾ 선민의식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의의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소명에 대한 인식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정작 선민다운 삶은 살지 못한 채, 부패한 가나안 민족이나 이방 민족들처럼 타락하고 말았다. 이에 예언자들은 여호와와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속적으로 이해했던 ‘승리와

184) W. C. Kaiser, *구약 난제 해설 (Hard Saying of the Old Testament)*,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224.

185) 아모스 시대의 북 이스라엘 백성은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9:10)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것은 남 유다도 마찬가지였다. 남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와 날이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날이라, 여호와와 날이라, 여호와와 날이라 하는 기짓말을 믿지 말라”(렐7:4).

186)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693.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의 날'이 될 것이고, 심판의 일차적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암5:18).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한 언약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록한 백성이 되었기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제사장 나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 민족들처럼 갖가지 죄악을 일삼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고 말았다. 이에 예언자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인에 그리고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예언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반 백성들은 물론 왕, 제사장, 부자와 같은 지도급 인사들의 타락이 심판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미3:11).¹⁸⁷⁾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섬기기를 철저히 거부한 채 갖가지 우상들을 섬겨왔던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¹⁸⁸⁾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은 블레셋, 모압과 암몬, 앗수르, 에티오피아를 포함해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전 방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슌2:4-15).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심판을 위해 쏟아 붓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 다르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분노는 당사자를 희망 없는 폭력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의미가 강하다. 더 나아가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그에게 억압받는 자를 구원한다는 뜻을 지닌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 악을 정벌하고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면,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187) VanGemeren, *예언서 연구*, 224.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호와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씨를 대로 씨이 이미 차유의 가망이 없었다. 왕국시대의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불의와 탐욕, 부도덕, 향락, 배금주의,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다.

188) Ibid., 376-377, 455-460.

나. 구원의 날

예언자들은 여호와와 그의 날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이지만, 한편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궁극적 소망과 구원을 가져오는 복된 날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여호와와 그의 날에 구원의 대상이 될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이 아니라 애굽의 남은 자(암9:12), 애굽의 남은 자(사19:21)를 비롯해 열방의 민족들도 포함될 것이다.¹⁸⁹⁾

예언자들은 동시대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그의 날을 피하고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욘2:13).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고(2:14),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2:28-30). 종말에 이루어질 남은 자들의 구원은 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슌3:9-12),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종말에 구원받게 될 남은 자들은 시온으로 피하여 그곳에서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욘2:32).

특히 스바냐서는 여호와와 그의 날의 심판과 구원을 우주적 관점에서 예언하고 있다. 여호와와 그의 날에 온 땅이 여호와와 그의 질투의 불로 소멸될 것이다(슌3:8; 암7:4; 9:5).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노아 언약으로 유지되었던 창조 질서가 전복된다는 것을 뜻한다(사26:11; 뱀후3:12,13). 실제로 예레미야는 유다가 모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노아 언약으로 유지된 창조 질서가 전복되는 광경을 목도했다(4:23-27). 하지만 이러한 창조 질서의 전복은 거꾸로 종말에 남은 자들을 위해 새로운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것,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⁹⁰⁾

2.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하나님 나라

189) VanGemeren, *예언서 연구*, 306-307. 신약의 저자들은 여호와와 그의 날에 이스라엘 뿐 아니라 세상 만국의 남은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행15:17)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였다(롬9:8; 24; 11:5,7).

190) Ibid., 541-542.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통치권을 확대해 나가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장구한 역사를 통해 인약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 섬기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에 예언자들은 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인과 함께 종말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등장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가. 인자가 새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단2장)과 다니엘의 환상(단7장)을 통해서 인간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계시해 주셨다. 이 세상 왕국이 아무리 강대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모든 권세는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2:28,44).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늘 보좌에 좌정한 대심판자이다(7:9). 옛적부터 계신 이는 “인자 같은 이”(7:7,13)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할 것이고(7:14;참고,계5:9),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라”(7:14).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7:18)과 함께 그 영원한 왕국을 향유할 것이다(7:27;참고,계5:10).

나. 고난 받는 종 메시아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과 부자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보호하고 축복할 것을 인약으로 확증해 주셨다(삼하7:14;시2:7). 다윗 왕조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로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표하고(신17:14-20;시72:1-7, 12-14), 하나님 왕국의 혜택을 그의 백성들에게 중개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대상11:2). 다윗 왕조가 이 언약적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 범위로 그 영역이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시2편;72:8). 하지만 다윗 왕조가 다스리던 남 유다 왕국은 여호와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언약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예언자들은 다윗 왕조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건설할 종말의 메시아를 내다보았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하나님 나라와 조화되는 다윗 자손 메시아의 우주적인 통치의 때를 예언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포로생활이 끝나면 열지파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섬길 것을 예고하였다(호3:5;14:2-8;암9:11-15).¹⁹¹⁾

이사야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고, 이 땅에 유례가 없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다(9:2-7;11:1-9).¹⁹²⁾ 메시아는 여호와와의 고난 받는 종의 역할을 통해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메시아는 이 세상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53:1-4). 메시아의 고난은 자기 백성의 죄 값을 대신하는 것이었는데,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았다(53:10). 메시아의 완전한 순종으로 죄 값을 완벽히 지불되었고, 언약의 모든 축복들이 그 안에서 보장되었다(53:11-12). 하나님은 고난 받는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한 메시아를 높이 주었고, 그에게 모든 권능과 영광을 허락해 주었다. 이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는 구원과 의롭다 함과 영광을 얻을 것이다(53:11). 고난 받는 종의 역할을 통해 종말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할 메시아는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의하면 다름 아닌 성육신 하신 메시아 예수님이셨다.¹⁹³⁾

3. 새로운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

메시아를 통해 완전한 구원에 동참할 새로운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윤리가 무엇 인지는 예언자들이 동서대의 타락한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세 가지 삶의 특징이 나타나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는데, 그것은 공의(fp;v|m)와 의(qd<x,) , 인애(dsej), 그리고 믿음

191) Waltke, *구약신학*, 1048-1049.

192) Kaiser, *구약성경신학*, 287.

193) Ibid., 296-297.

(hn:Wma)을 행하는 삶이다(미6:8).¹⁹⁴⁾

가. 공의와 의

공의(fp:v]m)는 쉽게 말하면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동하는 일체의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다(창18:19;26:5). 일반적으로 공의(justice)는 율법을 행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율법과 동일시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공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궁극적으로 공의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구약성경에서 인간이 행하는 공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다.¹⁹⁵⁾ 한편 의(qd<x, 혹은 hq;d;x,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려는 일체의 모습이다.¹⁹⁶⁾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공의와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행한다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로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hq;d;x)와 공의(fp:v]m)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셨다(창18:19). 아모스 선지자는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공의(fp:v]m)을 물같이, 정의(hq;d;x)를 하수같이” 흘림으로써 그 시대의 악습과 위선적인 행위, 그리고 종교적 허례들을 벌리하도록 권고하였다(5:24).

나. 인애

인애(dsej, loving kindness)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는 넘치는 은혜의 부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인애 관계를 결속하는 보이지 않는 끈의 역할을 한다.¹⁹⁷⁾ 부

194) 차준희, *열두 예언자의 영성* (서울: 세물결출판사, 2014) 6.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23:23)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약 신앙을 ‘정의와 인애와 믿음’으로 집약하고 계시는데, 정의는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를(암5:24), 인애는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를(호6:6), 그리고 믿음은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를(사7:9)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의 삶의 윤리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제시한 삶의 윤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195)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소애인서* (서울: IVP, 2013), 190-193.

196) Ibid., 279-280.

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헤세드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는 서로를 결속 시키는 보이지 않는 끈인 헤세드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된다.¹⁹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 주시는 헤세드는 은혜와 자비로 나타난다. 왕이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언제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결혼하였을 때 증명되었다(호2:19).¹⁹⁹⁾ 인간 편에서의 헤세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을 지키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만약 언약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진리의 결핍이나 성실의 결핍을 드러낸다면, 이것은 헤세드를 저버리는 영적 배춘행위이다.²⁰⁰⁾

다. 믿음

믿음(hn:Wma)은 ‘견고함, 신뢰, 신실함, 성실함’을 의미한다. 이 단어가 물리적인 것에 사용될 때는 “견고함”(firmness)을 의미하고(출17:12),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신뢰”(trust)를 의미한다(잠12:17).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그 말씀에 대한 “신실성”(faithfulness)을 의미한다(신32:4).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hn:Wma) 살아야 한다고 외쳤는데(2:4), 이 선포 속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약속의 말씀들을 확고히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²⁰¹⁾

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삶

공의와 인애와 믿음으로 특징지어지는 언약 백성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197) Kaiser, *구약성경신학*, 272.

198) VanGemeren, *예언서 연구*, 187.

199) Ibid., 192-193, 200.

200) Kaiser, *구약성경신학*, 273.

201) Ibid., 309. 구약에서 믿음은 자주 의(qd<x)와 병치되어 나타나는데(삼상26:23;시33:4,5;40:10; 96:13;119:75;143:1), 믿음이 의인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모두 의인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리킨다.

를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신6:5).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공의와 인애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공의와 인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교훈해 주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바로 이 부분, 즉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 올 것임을 내다보았다. 메시아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인애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실 것이다(슥7:9,10;11:13;12:10;13:7).²⁰²⁾

4. 새 언약과 성령

새 언약은 옛 언약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기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언약에 대한 순종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돌비에 새겨진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언약의 계명들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옛 언약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호1:9)고 여겨졌다.

호세아서는 왕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결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의 외형적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끈, 즉 사랑이다. 진정한 결혼이 사랑을 전제하듯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의 끈, 즉 헤세드를 지비렸다(4:1;6:4,6).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헤세드, 즉 사랑과 충성을 회복해야 한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202) 요엘서, 호세아서, 스가랴, 발라기는 성령의 사역의 주된 초점이 공의와 인애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은 비레에 새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의와 공의, 인애와 긍휼함으로’ 장가들 것이고, 그 결과 백성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2:19). 여호와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 즉 공의와 인애와 의를 닮아서 실천하는 것이다.²⁰³⁾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이유는 언약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에 순종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은 ‘마음의 할례’였다. 그런데 새 언약은 새로운 마음, 즉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약속하고 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렘 31:33).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뚜렷한 차이는 새로운 공동체의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에 있다. 옛 공동체는 제도들, 즉 언약계, 언약 돌판, 율법의 말씀들, 성소, 제사 등에 소망을 두었으나 ‘허물과 죄’로 얼룩지고 말았다. 그러나 새 공동체는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고, 물리적 실제에서 영적 실제로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옛 언약 백성들 마음 판에 새겨진 죄 대신에 여호와의 법이 새 언약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다.²⁰⁴⁾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공의와 인애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부패하고 폐역한 마음 때문이었다(호4:12;5:4).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에게서 부패한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인애와 의의 열매를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맺게 할 것이다. 옛 언약 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왕이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들과 같은 중재자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호4:2). 하지만 새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와 깊이 있는 연합과 경험이 중재자들의 도움 없이 가능해 질 것이다. 왜냐하면 새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변

203) Kaiser, *구약성경신학*, 271-273.

204) VanGemeren, *예언서 연구*, 549.

화가 일어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법의 내면화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의 확실한 성공을 보증한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앎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적이고 깊이 있는 인격적인 앎이 될 것이다.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근본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법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다. 예언자들은 종말의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임을 선포했는데(사59:21; 겔36:26), 여호와와 신인 성령의 역할은 백성들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사 44:1-4; 61:1-3). 새 언약 아래서 성령은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이 되게 만든다.²⁰⁵⁾

5.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세계 열방으로 구성되는 새 백성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목적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열국의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암9:12; 미5:7).²⁰⁶⁾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멸시하며 그와의 언약을 파기하는 모든 자들을 언약과 약속과 미래의 축복에서 제외시켜 버릴 것이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경배하는 모든 자들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나이와 성과 사회적 지위와 인종과 관계없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욘2:32), 여호와와 신인 성령충만한 자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는 자들로 구성될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애돴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포함될 것임을 선포했다(9:12). 스바냐 선지자는 “이방의 모든 해변에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슥2:11)고 외치면서, 비록 이방인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들의 경배는 열납되어질 것임을 선포했다.

아모스는 미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환난을 통과한 후에 회개하

205) VanGemeren, *예언서 연구*, 550.

206) Kaiser, *구약성경신학*, 269, 276-277.

고 돌아오게 하시는 자로 제시한다. 미래에 남은 자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의를 배워서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5:14,15). 종말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질 때, 남은 자는 다윗 언약의 수혜자로서 다윗처럼 왕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사55:3).²⁰⁷⁾ 왕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다(시72:1,2). 미가서에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메시아의 통치와 죄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데(7:18-20),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4:5:5:7),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며(6:6-8), 하나님을 바라는 자이다(7:7). 남은 자들이 이전에는 약하고 핍박받는 자들이었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강력한 자가 될 것이다(사41:14,15). 그래서 강력한 철과 놋으로 치장된 소처럼 대적을 밟게 될 것이고(미4:13), 젊은 사자와 같아서 대적과 싸우면 백전백승하게 될 것이다(미5:8).

6. 새 예루살렘(새 하늘과 새 땅)

예언자들은 종말이 오면 기존의 창조 질서가 전복되고 새로운 창조 질서가 출현할 것을 내다보았다(욘3:18; 암9:5-8,13,14; 학2:15-19; 슥8:11,12). 새로운 창조 질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질서이기에 종말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 의 말이니라.”(사66:22) 예언자들은 종말의 새 예루살렘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고(슥14:9,10), 열방의 남은 자들도 정기적으로 초막절 축재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될 것이다(슥14:16-19). 이사야는 시온을 새 창조의 기록한 중심지로, 새 시대의 예배 중심지로 위치시키고 있고(40-66 장), 에스겔은 종말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하나가 될 것임을 내다보고 있다(겔47:1-12; 슥14:20,21).²⁰⁸⁾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는 새 언약이 시행되고, 모든 죄가 청산되며,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새 백성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미4:1-4:5:2-5:7:18-20).

207) 이사야서는 모든 사람이 다윗 언약의 은혜를 입어 왕이 된다는 사상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사66:12).

208) VanGemeren, *예언서 연구*, 587.

제 3 절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한 보충해설과 질문들

사무엘상부터 말라기까지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3차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다윗 왕국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국의 역할과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었는데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솔로몬에 대한 관심은 기껏해야 그가 신적 지혜를 가졌고, 천 이 명의 치첩들을 두었으며, 나중에는 정략 결혼을 한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에 빠져 살다가 타락해서 결국 분열왕국의 빌미를 제공한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정도이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지식보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전부후부한 신적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왕권과 나라를 견고하게 해서 주변 나라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신적 지혜와 함께 주변 나라들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파워와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솔로몬 왕국 시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라”(창12:3)는 말씀을 성취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시대였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는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땅’에 대한 약속이 이미 완벽하게 성취된 때였다(왕상4:25). 이제 솔로몬 왕국의 남은 과제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 지혜와 정치적 파워와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함으로써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이었다. 성전 건축 봉헌 예식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 미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왕하8:41-43). 그러나 이런 자각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중국에는 열방의 왕들처럼 변질되고 말았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각각 앗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어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앗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신들이 어호와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도 아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의 나오는 언약의 축복과 지주 공식(신28:36,37,49-52)에 근거하여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언약적 저주의 결과 때문이다(왕하17:24-32; 25:18-24).

셋째,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이 선포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멸망을 목격하면서 민족적이고 영토적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고, 장차 혈통과 지역적 차원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도래할 것임을 내다보았다. 서로가 살았던 시대는 달랐지만 예언자들이 선포한 종말에 회복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종말에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메시아는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 새 언약을 통해 새로운 백성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백성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세계 열방에서 부름 받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로 구성될 것이다. 이들은 여호와의 영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종말에 메시아는 새로운 창조 질서의 중심지이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토로 새 예루살렘을 만들 것이고, 새로운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성취를 맛보며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분열왕국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예언서를 읽을 때는 핵심적인 키워드들, 즉 여호와의 날, 메시아 왕국, 새 언약, 새 백성, 여호와의 영, 새 예루살렘 등의 핵심 용어들을 중심으로 종말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1. 이해를 위한 질문들

가. 왕국시대

1. 주변 대적들의 침입과 압제로 인해 절대적 생존의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이 사부엘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삼상8:19)

2.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역한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이 났을 때 흩어진 지파들을 하나로 연합해서 싸움을 주도할 강력한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보

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3.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삼상8:21-22)

4.비록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정이 허락되었지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열방의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했던 덕목과 태도는 무엇입니까?(신17:19)

5.이스라엘 백성이 내세웠던 사울 왕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삼상13:9;15:12,15)

6.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신 마음의 중심”을 근거로 말해봅시다(삼상16:7;삼상17:34,35 참조).

7.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의 내용과 특징은 무엇입니까?(삼하7장)

8.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신적 지혜와 함께 주변 나라들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파워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창12:3;왕하8:41-43)

9.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에로보암이 범한 죄악들은 무엇입니까?(왕상12:29,31-33)

10.에로보암 이후 세워진 열아홉 명의 왕들 모두가 한결같이 “에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에로보암의 악한 길”을 동일하게 답습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왕상15:34;16:19,26,31;22:52).

11.다윗 가문의 후손들인 남 유다의 20명의 왕들이 한 왕조를 이어가며 무려 400여 년간 왕국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삼하7:16)

12.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유다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폐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왕하17:24-32;25:18-24)

나. 예언서들

1.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고대 근동의 직관적 점성술사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신18:18,19;암3:7,8) 참 선지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2.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을 어떤 날로만 이해하고 있

있습니까? 반면에 예언자들은 여호와와 그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속적으로 이해했던 ‘승리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암5:18)

3. 예언자들은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과 함께 종말에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까?(단7:14)

4. 이사야에 의하면 종말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는 누구입니까?(9:2-7; 11:1-9) 그리고 메시아는 어떻게 그 과업을 성취합니까?(53:1-11)

5. 메시아를 통해 완전한 구원에 동참하게 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6.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참된 믿음의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슌12:10)

7. 예언자들이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을 “새로운 마음” 즉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에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옛 언약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말해봅시다(렘31:33).

8.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9. 종말에 성취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은 누구입니까?(암9:12; 미5:7)

10. 예언자들은 종말이 오면 기존의 창조 질서가 전복되고 새로운 창조 질서가 출현할 것을 내다보았는데, 그들이 바라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슌14:9,10; 미4:1-4; 5:2-5; 7:18-20)

2. 적용을 위한 질문들

1. 하나님이 보셨던 나뭇의 중심은 무엇입니까?(삼상16:7)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뭇의 중심이 있습니까?

2.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 지혜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지 못한 채 사치와 향락 속에 살다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내용물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신용하고 있습니까?

3.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그릇된 예정론에 근거한 잘못된 구원의 확신,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패념치 받고 오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결코 성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멸망 사건을 가지고 설명해 봅시다.

4. 예언자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윤리로 정의와 인애를 행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삶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는 이러한 삶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5.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자 종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염두에 둘 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구원을 자꾸 개인화, 내면화, 내세지향화 할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 말해 봅시다.

6. 만약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까지 포괄한다면, 교회는 자유, 정의, 평화, 사회참여, 정치 참여, 문화운동 등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7. 성경의 예언자들이 현존하는 질서의 불법성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한편, 신앙공동체가 바라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선포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교회는 타락한 이 세상과 사회를 향하여 어떻게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8. 예언자들은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완전히 역전될 종말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날이 되면 모든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들은 모두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우상들인 돈과 물질, 건강과 쾌락, 자신과 자녀 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진정 주의 세림과 함께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 7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본 논문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언약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고,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성경공부 교재(32과)로 만들어 교회현장에서 진행해 본 것을 토대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범위와 분량을 생각할 때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4차 프로젝트까지 다룰 수는 없어서, 본 논문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1차, 2차, 3차 프로젝트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언약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성경읽기 교재를 만들게 된 배경, 그 동안 섬겼던 교회들에서 진행해 본 성경일독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의 필요성과 유익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정의, 중요 특징들, 그리고 두 개념의 상관관계를 매리테스 G. 클라인이 쓴 두 권의 책, '하나님 나라의 서막'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복한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하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성경의 역사는 아무런 기복이 없는 평면의 역사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다양한 역동성을 가진 굴곡의 역사로 펼쳐졌다.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백성의 심각한 타락과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해 적어도 세 번의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 세 번의 중대한 위기는 바벨탑 사건, 사사시대의 타락, 말라기 시대의 타락을 통해서 찾아

왔고, 이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꿈은 산산이 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의 결과로 위기에 처한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회복과 함께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4장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1차 프로젝트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통치자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였다(창1-2장).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첫 출발부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창3장).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대표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끝없는 충돌의 역사로 집결되었는데, 하나님은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뱀의 후손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한편 여자의 후손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구속해 주셨다(창4-11장).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2차 프로젝트가 창세기 12장에서 사사기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들인 셋과 노아의 후손들조차 뱀의 후손인 가인계열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자,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부름 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을 통해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2차 프로젝트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었다(창12-50장).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광야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방편들(율법, 성막, 고난)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았다(출애굽기-신명기).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지만(여호수아), 그 땅에서 언약에 불순종함으로써 새롭게 시도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또 다시 좌초하게 되었다(사사기).

6장에서는 사부엘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3차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언약과 왕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3차 프로젝트를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하셨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여호와의 기록한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기록한

사명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미션이 또 다시 실패하고 말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왕정시대와 포로시대에 활동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비록 그 시대의 왕들과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메시아적 왕이 나타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쳐부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성취되고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임을 내다보았다. 종말에 메시아가 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가 만들어 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기록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가면서 최종적인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마태복음-요한계시록).

제 2 절 교재에 근거한 성경일독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

본 연구자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에서 본 구약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교회 현장에서 성경일독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해 본 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유익과 한계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1. 긍정적인 유익들

첫째, 성경 일독 비율 향상과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교회 현장을 살펴보면 많은 성도들이 해가 바뀔 때마다 성경일독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지만, 한 해가 마무리 될 때 성경일독에 실패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번번이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해마다 성도들이 성경일독을 굳게 결심하면서도 번번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인물별, 사건별로는 잘 알고 있지만, 각 인물과 사건들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성경일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과 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개괄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평소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해 성경 일독에 번번이 실패했던 성도들이 성경 일독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강의와 안내를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 매년 성경을 일독 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둘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죄용서와 개인의 영혼구원에만 국한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형성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국가적 차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자연계를 비롯한 모든 피조세계를 포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무시하고 내세지향적인 신앙태도만을 견지하던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자각과 깨달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부조리, 잘못된 관행과 악습, 제도적 병폐, 노동자 인권, 자연환경, 생태환경, 생명윤리 등 현대사회의 모든 이슈에 대해 성경적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언약 백성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근본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일방성 혹은 무조건성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적 책임(율법 준수와 순종)을 다할 때에만 이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는 왕국 운영의 방식을 택하셨다. 성도들은 성경일독 프로그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백성이지만, 얼마든지 에덴동산에서 추방될 수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이방나라로 흩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했던 실패의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그 신앙고백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신선한 자극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교회 안에는 믿음과 행위,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채,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값싼 복음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 교회 안에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또한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사회적 이슈, 즉 부의 독점, 가난한 자, 불평등, 인권 등의 문제에는 도무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 이런 한국교회의 끝없는 추락과 교인들의 윤리적 실패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 신학적 요인들이 함께 얽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적 세계관과 윤리관이 만들어 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분을 왕으로, 즉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그 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와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결단과 헌신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없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사람은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로 제시한 공의와 인애와 믿음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적 세계관과 윤리관으로 견고하게 무장시켜 준다.

2. 한계와 보완점들

첫째, 구약을 3차 프로젝트로 나누는 것의 신학적 타당성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는 성도들의 성경 개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3차 프로젝트로 나누어 세분화시켰다. 이것은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못지않게 백성의 언약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지는 성경신학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성취되는데 있어서 언약 백성의 책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주권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초역사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성취해 가시기 때문이다.

둘째, 시가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구약을 장르상으로 분류하자면 크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자가 만든 성경공부 교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를 어느 정도 다루고 있지만, 구약의 세 번째 책의 군인 시가서(시편과 지혜서)는 적절히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시편들에는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 삶의 다양한 모습들(찬양시, 감사시, 탄원시, 지혜시 등)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갱신 축제와 관련된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시24, 50편). 또한 모든 지혜서(욥기, 잠언, 전도서)에는 공통으로 “어호와를 경외하라”는 주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최초의 언약을 세울 때에 하나님과 공적인 대면을 하면서 공동체적 경험을 한 것에 근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시가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실천적 적용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자가 32주용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면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1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본 논문의 1차적 자료가 되었던 성경공부 교재가 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 그것이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에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적용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이해와 적용을 위한 질문들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성경공부 교재

내용 안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에 대한 현장분석을 통한 좀 더 구체적인 적용점을 포함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 김지찬.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 구약 역사서의 문예적-신학적 시론*.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 김창대.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 서울: IVP, 2013.
- 김희권.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오경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_____.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에서 읽는 모세오경 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서울: 복있는 사람, 2007.
- 박동현. *구약성경과 구약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 송제근.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서울: 솔로몬, 1998.
- _____.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3.
- 이만열. *한국 기독교사 특강*. 서울: 성경읽기사, 1989.
- 차준희. *열두 예언자의 영성*. 서울: 새물결출판사, 2014.

2. 번역서적

- Beale, G. K. *신약성경 신학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3.
- Beasley-Murray, G. R. *예수와 하나님 나라 (Jesus and the Kingdom of God)*. 박문제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 Bright, John.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김철손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2.
- Brueggemann, Walter. *구약신학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류호준, 류호영 역. 서울: CLC, 2003.

- _____. *예언자적 상상력 (The Prophetic Imagination)*. 김기철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9.
- Carson, D. A. *신약개론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노진준 역. 서울: 은성, 1993.
- Dumbrell, William J. *새 언약과 새 창조 (The End of The Beginning: Revelation 21-22 and the Old Testament)*. 장세훈 역. 서울: CLC, 2003.
- _____. *언약신학과 종말론 (The Search for Order: Biblical Eschatology in Focus)*. 장세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_____. *언약과 창조, 구약 언약의 신학 (Covenant and Creation, A Theology of Old Testament Covenant)*. 최우성 역. 서울: 크리스찬 서적, 1999.
- Eichrodt, W. *구약성서신학 II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ume two)*.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Goldsworthy, Graeme.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Gospel and Kingdom)*. 김영철 역. 서울: 성서유니온, 1988.
- Johnson, Paul. *유대인의 역사 (A History of the Jews)*. 김한성 역. 서울: 포이에마, 2014.
- Kline, Meredith G. *하나님 나라의 노래 (God, Heaven, and Har Magedon: A Covenantal Tale of Cosmos and Telos)*. 이수영 역.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0.
- _____. *하나님 나라의 서막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s for a Covenantal Worldview)*. 김구원 역.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07.
- Ladd, George E. *신약신학 (New Testament Theology)*. 신성종,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_____. *하나님 나라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 (Crucial Questions About the Kingdom of God)*. 신성종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 _____.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 박미가 역. 서울: 시로사랑, 2001.
- Provan Iain, Long V. Philips, Longman III Tremper.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A*

- Biblical History of Israel*). 김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 Schnittjer, Gary Edward. *토라 스토리 (The Torah Story)*. 박철현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4.
- Waltke, Bruce K. *구약 신학 (An Old Testament Theology)*.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 Kaiser, Jr. Walter C. *구약 난제 해설 (Hard Saying of the Old Testament)*.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_____. *구약성경신학 (Old Testament Theology)*. 최종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Martens, Elmer A. *하나님의 계획 (God's Design)*. 김의원 역.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9.
- Milton, John P.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God's covenant of blessing)*. 이근호 역. 서울: 킨콜디아사, 1982.
- Robertson, O. Palmer.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The Christ of the Covenants)*.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 VanGemeren, W. A. *구약재시의 발전사 I (Progress of Redemption)*. 안병호, 김의원 역. 서울: 성경읽기사, 1993.
- _____. *예언서 연구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김의원, 이명철 역. 서울: 엠마오, 1993.
- Vos, Geerhardus. *성경신학 (Biblical Theology)*. 이송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 _____. *하나님 나라와 교회 (The Kingdom of God and Church)*.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3. 외국서적

- Butler, Trent C. *Joshua. WBC*. Texas: Word Books, 1983.
- Graaf, S. G. De. *Promise and Deliverance* volume 1. Ontario: Paideia Press, 1977.
-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BC*. Texas: Word Books, 1987.

_____. *Genesis 16-50. WBC*. Dallas: Word, 1994.

Wright, N. T.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London: SPCK, 1996.

4. 기타

박삼열. “한국 개신교인의 성경과 말씀묵상에 관한 의식조사,” *복화와 신학*. 2004년 7월호.

이종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창1:28;2:15)의 신학적 고찰,” *구약논단* Vol 8, 2000.

Rad, G. von. “מֶלֶךְ” “מַלְכוּת”, G. Kittel and G. Friedrich, ed., *TDNT*.

Vita of
Sang Bok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Changhundae Church, Suwon-si.

Personal Data:

Birthdate: April 6, 1969
 Marital Status: Married
 Home Address: 373, Gwongwang-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Korea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rdained: October, 1995

Education:

B. A.: Chongshin University, Seoul, 1992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5
 Th. M.: Talbot School of Theology, La Mirada, 2003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10/2011 to present: Senior Pastor
 of Changhundae Church, Suwon-si
 11/2006 to 8/2011: Assistant Pastor
 of Sarang Church, Seoul
 4/1997 to 6/2000: Korea Army Chaplain
 of 2nd Division Artillery Regiment, Inje